

“자동차 AM 라디오 퇴출되나”

전기차를 중심으로 일부 신자들이 AM 라디오 기능을 탑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의무 설치 법안을 논의 중인 것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M 라디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2022년부터 테슬라를 비롯해 BMW, 폴크스바겐, 마쓰다, 폴스타 등 8개 자동차 메이커가 최신형 전기차 모델에서 AM 라디오를 삭제했다. 특히 전기차에 AM 라디오 기능을 삭제하는 이유는 전기차 특유의 전자파 방해로 AM 라디오의 잡음과 소음을 더욱 키우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AM 라디오가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를 피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기술혁신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AM 라디오의 재난 대응 방송 역할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 단계에서 AM 라디오의 음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AM 라디오는 이미 1960년대부터 FM 라디오에 밀려 사양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온라인 팟캐스트는 물론 인터넷 유튜브 플랫폼은 수많은 미디어 매체 홍

연방의회 AM 라디오
의무 설치 법안 논의

수 속에, AM 라디오가 유일하게 활로를 찾은 이념 전파 통로 역할 또한 효용을 다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AM 라디오 퇴출 분위기에 반발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방송연합회(NAB)는 미국에서 유색인종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매월 8200만명이 AM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방의회는 또한 AM 라디오 유지를 위해 각종 보수단체의 로비를 받고 있

다. 청취률이 가장 높은 라디오 토크쇼 대부분이 공화당 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사한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시골 지역의 백인 노년층이 AM 라디오를 중심으로 맞춰있기 때문에, AM 라디오 삭제 캠페인이 음모론과 결부돼 있기도 하다.

민주당 중에서도 시골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신차 출시 AM 라디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오랫동안 긴급 속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 AM 라디오를 꼽으며 의무화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포드는 원래 올해부터 출시하는 모든 형태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AM 라디오를 퇴출하려고 했으나 연방의회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로 애초 계획을 뒤집었다.

한편 상당수의 보수성향 라디오 제작진도 더이상 AM 라디오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메신저들도 소셜 미디어를 편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김옥채 기자

경찰, 사다리차 타고 대학건물 진입… 시위대 230명 체포

미국대학 거세지는 시위 현장

지난달 30일 오후 9시, 미국 대학가 전역으로 퍼진 가자지구 전쟁 반대 및 이스라엘 비판 시위가 처음 시작된 뉴욕 컬럼비아대 정문 앞. 낮 시간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던 이곳에 갑자기 경찰관들이 모여들었다.

제복을 입은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이

캠퍼스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이어 장갑 사다리차를 통해 무장한 경찰대원들이 학생 시위대가 점거하고 있는 해밀턴홀 건물 2층에 투입했다. 해밀턴홀은 1968년 베트남전 당시 반전 시위대에 점거된 후 미국 학생운동의 상징이 된 곳이다.

뉴욕경찰(NYPD)의 작전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경찰의 캠퍼스 진입 후 해밀턴홀을 점거했던 시위대 손에 플

라스틱 수습이 채워져 끌려 나올 때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CNN은 경찰 당국자를 인용해 이날 시위대 230여 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미국 내 친(親) 팔레스타인 시위의 '진앙'으로 꼽히는 컬럼비아대에 지난달 18일에 이어 두 번째 공권력이 투입되자 언론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미국 사회를 둘로 갈라놨다"고 지적했다.

▶ 8면 '시위'로 계속 뉴욕=강태화 특파원



지난달 30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뉴욕의 컬럼비아대를 점거하자 뉴욕경찰 대원들이 장갑사다리를 타고 대학 해밀턴홀로 진입하고 있다. [EPA·AFP=연합뉴스]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NEW
유명 델리

DC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NEW
버블티 가게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의 한달 1만6천, AP 36만불

식당 자리

6,408 SF, 엘바나 메릴랜드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식당 자리

7,100 SF,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와트와워 세일먼트

식당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식당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부근

식당 자리

7800 SF, 임대, 버지니아 애쉬번

식당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

Beer & Wine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도장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애쉬번

사무실

에난데일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젤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사무실 자리 임대

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 맞습니다

창고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시는 분 5000~8000

창고자리 임대

전기사설 완벽, 9000 SF, VA 헌든

그로서리

스페니쉬 그로서리 자리

5,484 SF, 폴스처치, 버지니아

상가

단독 건물

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발티모아 상업건물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주택

콘도

방2, 화2,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맨 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랜딩 서비스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 업 체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03.928.5990

k@dwllwashington.com

승경호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llwashington.com

내 집
장 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염치없는 친윤, 용기없는 비윤... 원내대표도 못 뽑는 여당

친윤, 총선책임 안지고 출마 만지작
비윤은 “분위기 보고 있다” 눈치
지켜보던 추경호만 “곧 최종 결심”
총선참패 3주 지났지만 혼란 여전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후임인 차기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손드는 사람이 없다. 후보 등록 하루 전이던 지난달 30일까지 출마선언자가 전무하자 윤 원내대표는 경선일을 3일에서 9일로 엿새 미뤘다. 구인난도, 선거 연기도 2004년 한나라당이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로 격상시킨 뒤로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보다 더한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친박’ 정우택 의원과 ‘비박’ 나경원 의원이 치열하게 경쟁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완패한 뒤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도 주호영·권영세·김태흠·이명수 의원 등 여러 중진



이철규

이 도전했다. 여론 원로는 “과거엔 위기일수록 당의 자원이자 할 수 있는 인사들이 선두에 섰다”며 “지금은 당이 죽어가는데도 용기 없는 자들이 고개만 숙인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은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이 돌면서 시작됐다. 대통령실과 접점이 있는 그가 총선 직후부터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표를 모으다는 관측에 ‘어이원’(어차피 이철규가 원내대표) 분위기가 당을 휘감았다. 일부에서 후보로 거론됐던 김도읍(4선)·김성원(3선) 의원은 차례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세론은 반작용을 낳았다. 총선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이 의원이 원내사령탑에 오르는 것에 “패장이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예의도 아니다”(홍준표 대구시장),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배현진 의원)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더라도 찬성표가 반수를 못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이런 비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본회의 일정 협의 상황'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Veto-거부) 분위기에 부담을 느낀 지도부가 결국 선거를 연기했지만, 당사자인 이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저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무분별한 언론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썼다.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중진들의 태도 역시 무책임하다. 출마설이 돌던 이종배(4선)·송석준·성일종(이하 3선) 의원 등은 이날까지 출마선언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당에서는 “총선 직후 비윤계 중심으로 혁신과 환골탈태 등을 앞장서서 외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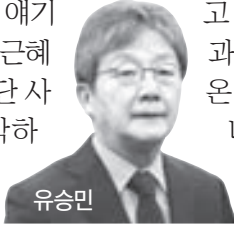
표 계산에만 골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그동안 지켜보던 경제부총리 출신 추경호(3선) 의원이 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루이틀고민 뒤 출마 여부를 최종 결심하겠다”고 밝힌 정도다. 차기 원내대표는 임무가 막중하다. 192석 범(汎)야권의 입법독주를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등의 5월 처리를 공언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입법저지선(150석)은 물론, 패스트트랙 저지선(121석)에도 못 미치는 108석 국민의힘이지만 시시비비를 따지고 입법부 내 일방 폭주는 막아야 한다. “극한 직업” “잘해도 본전” “독배”라 해도 누군가는 짊어져야 할 일이다. 새 원내대표 앞엔 당정 관계 재확립이라는 숙제도 놓여 있다. 전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 달라는 게 낙선자들의 요구인데, 아무도 그 역할에 자신이 없는 게 구인난의 한 원인일 것”이라고 했다. 염치가 없는 친윤, 용기가 없는 비윤 모두가 문제다. 김효성 기자

유승민 “당대표 도전 고민... 한동훈은 보수에 들어온 용병”

‘잠재적 당권 주자’ 나경원·안철수
연금개혁 등 목소리, 존재감 키워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황우여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여권의 잠재적 당권 주자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당권 도전) 고민을 할 수밖에 없

다”며 “늘 이 나라를 위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겨냥한 ‘배신자 프레임’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과 국정농단 사태,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유승민

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니었느냐”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보수에 들어온 용병’으로 지칭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도 연일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 전 원내대

표는 SBS 라디오에서 “국회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안 된다”며 저출산과 연금개혁, 기후변화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인구가 후내일포럼’(가칭)이라는 연구단체 설립을 준비 중인데 세력화 관측도 있다. 안철수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범야권이 추진 중인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 특검법을 받아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보수의 가치와 당이 나

아갈 방향에 맞다”고 주장했다. 당권 주자의 움직임은 ‘당원투표 100%’인 현행 당 대표 경선 룰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개정 여부가) 당이 얼마나 정신을 차렸느냐는 변화의 표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나 전 원내대표는 “당원 100%는 저를 떨어뜨리려고 한 물이었다”고 했다. 안 의원도 ‘민심 반영 비중을 늘릴 경우 당권 도전에 나서 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때 재개발 앞둔 엄마 ‘성남 땅’ 4억 매입

3.5억 증여받아 매매대금 충당
오 후보자 측 “증여세 납부했다”
오동운(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을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합법적으로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부모 찬스’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



오동운

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예금 2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

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성남시 땅은 2020년 8월 오씨가 20살 때 어머니로부터 사들였다. 이 땅은 재개발을 앞둔 곳으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

을 줄이려 이른바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오씨는 이때 오 후보자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증여받아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받은 돈 약 3억원 외 1억2000만원은 신한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충당했다고 오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문현경 기자

☁️

워싱턴 날씨 (°F)

☀️

5월 2일(목) 88~66

3일(금)	77~55	☁️	6일(월)	75~64	☁️
4일(토)	64~55	☁️	7일(화)	79~68	☁️
5일(일)	64~61	☁️	8일(수)	87~71	☀️

📶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MATCHINGPOINT

매칭포인트 결혼정보회사

VA/MD/DC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결혼매칭서비스 런칭!

가까운 인연, 먼 길을 돌아오기에 당신의 노력과 전문적인 만남의 주선이 필요합니다. 매칭포인트는 초혼, 재혼을 위한 의미있는 만남을 소개합니다.

QR코드 스캔 후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가입 절차 확인 및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571-591-7727

웹사이트 www.mymatchingpoint.com

한인여고생 사망 2년 만에 단속 시작

<카메라 설치>

페어팩스 카운티 느려터진 행정에
한인 포함 지역 커뮤니티 ‘공분’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옥튼 고교 앞의 브레이크 레인에서 한인 여고생 등 두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지 거의 2년만에 스피드 카메라가 설치돼 한인 커뮤니티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도로는 사고 전부터 과속차량이 많았으며, 사고 직후 스피드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었으나 행정관료의 무능과 각종 절차를 핑계로 계속 미뤄져 왔다.

지난 2022년 6월 7일 범인 우스먼 사히드(당시 18세)는 친구들과 함께 BMW 승용차를 몰며, 제한속도 35마일 구간의 브레이크 레인 도로를 81마일로 질주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해 핸들을 꺾어 인도를 덮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한인 안리안 양(당시 15



지난해 사고 현장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세)을 비롯해 두명이 사망하고 한명이 중상을 입었다. 범인은 지난 달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판사 재량에 의해 감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번 유가족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찰당국은 향후 30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단속 티켓을 발부할 예정이다.

카운티 정부는 옥튼 고교 외에도 크레스터브룩 초등학교(드레인스빌 디스트릭), 어빙 중학교(브래덕 디스트

릭), 키 중학교(프랭크코니아 디스트릭), 런던 타운 초등학교(셜리 디스트릭), 슬리피 할로우 초등학교(메이슨 디스트릭), 사우스 카운티 중학교(마운트버논 디스트릭), 테라셋 초등학교(헌터밀 디스트릭), 웨스트 스프링필드 고교(스프링필드 디스트릭) 앞에도 스피드 카메라를 설치했다.

벌금은 제한속도 10-14마일 초과시 50달러, 15-19마일 초과시 75달러, 20마일 이상 초과시 100달러가 부과된다.

김욱재 기자

“아이들 위한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 언론 만나24 뉴스가 주최한 ‘캄보디아 고아돕기 기금모금 음악회’가 후원금 목표 금액을 달성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7일, 엘리콧시티 소재 벤엘교회(담임목사백신중)에서 개최한 음악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아이들이 등·하교시 이용할 중고트럭 구입비(1만7000달러)를 넘는 총 18,135달러의 후원금이 모이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음악회는 캄보디아 칸달(Kandal) 지역에서 사역하는 김정영 선교사의 ‘주님의 자녀(HISCHILD)’ 고아원을 후원하는 행사로 고아원은 그리스도 대가족

공동체로서 아이들에게 의식주, 교육 및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있다.

박노경 대표는 “하나님이 ‘고아를 위해 기도하고 품으라’는 마음을 주셨을때 뜻을 함께 한 동역자들이 있어 음악회를 치를수 있었다”며 감사사를 전했다.

이날 기금 모금 음악회는 DMV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중인 권기선, 윤해민, 정유진 소프라노와 이성진 씨 찬미 가족 찬양단, 코람데오 남성 중창단, 징검다리 난타팀 등 총 6팀의 재능기부로 의미있는 무대가 만들어졌다.

김윤미 기자



‘만나24 뉴스’ 박노경 대표와 음악회 출연자들이 무대인사를 하고 있다.

“PIP학생대회 본선전 오는 4일 개최”

미주한미동맹재단 주최
국가보훈부 후원

미주한미동맹재단(회장 최태은·사진)이 오는 4일(토) 오후2시, 코리아 커뮤니티센터에서 PIP학생대회 본선전을 개최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경에)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정전 71주년을 기념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본선에는 버지니아 8개팀, 캘리포니아 7개팀, 그리고 뉴저지, 조지아, 일리노이, 네브라스카, 미주리/앨라배마에서 각각 1개팀 등 총 20개팀이 진출했다.

이 가운데 본선전 상위 10개팀만이 11월 개최 예정인 결선전 진출이 가능하며, 각 팀당 500달러의 캠페인 예산을 지급받아 한국의 가치와 한반도 평화 의미를 미 주류 사회에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직접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결선전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챗 피터슨 이사장은 “한미동맹은 이제 군사적 혈맹을 넘어 다변화 되는 국제관계 속에서 양국이 함께 번영하기 위해 경제와 문화까지 확장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본선 진출 20개팀 뿐만 아니라 예선전에 참가한 모든 참가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양국 당국자들이 정책 반영을 고려해도 될 만큼 의미 있는 주제들이 많았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자평했다.

김경에 이사(M&T Bank 부사장)는 “본선전 상위 3개팀은 한국 해군사관학교의 초청으로 6월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 해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과 함께 생활하며 요트,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 스포츠 체험과 역사의를 고취하는 여름 캠프에 참가 특전도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김윤미 기자

볼티모어 다리 붕괴 선박 5월10일까지 예인

메릴랜드 볼티모어 키 브릿지에 충돌했던 컨테이너선 달리호가 5월 10일까지 사고 현장에서 수습될 예정이다.

달리호는 지난 3월26일 볼티모어 항구를 출발한 직후 동력을 잃고 키 브릿지 교각과 부딪혀 다리 전체가 붕괴해 한달 넘게 볼티모어 경제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선박은 볼티모어 항에서 인계돼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운항이 금지된다.

달리호가 인계된 다음에도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여전히 제한된다.

당국에서는 3300톤에 달하는 교각 잔해를 수거했으나 아직도 선박 안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거대 철제 잔해물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약 5천톤 이상의 잔해를 더 수거해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욱재 기자

“왼쪽 뺨에 점 있어요”

입양 한인 마이클 이
친부모 찾는 도움 요청

입양 한인 마이클 리 베일리(한국명 이철호·43)씨가 친가족을 찾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뿌리 찾기 사연을 보내 친가족을 찾았다고 알렸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이씨는 1981년 6월 21일생으로 추정된다. 그는 1982년 12월 또는 1983년 1월 부산역에서 혼자 남겨진 채로 발견됐고, 부산시청을 통해 남광아동복지회로 인계됐다.

이씨는 당초 한국인 부부에게 입양됐지만, 알 수 없는 사유로 돌아왔다. 이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위탁 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1983년 11월 30일



입양 한인 이철호 씨의 어린 적 모습(왼쪽)과 현재 모습. [연합]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이씨의 특징은 왼쪽 뺨에 있는 점으로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이씨는 “한국 이름과 생년월일은 발견된 후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며 “건강한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길을 잃었거나 어떤 사정으로 부모님과 떨어졌을 거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령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Member FDIC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The advertisement features a clean, modern design with a light gray background. At the top center, the word "DARCARS" is written in a large, bold, blue sans-serif font. Below it, "LEXUS OF SILVER SPRING" is displayed in a smaller, black, all-caps sans-serif font. Underneath that is the official Lexus logo, consisting of a stylized 'L' inside an oval followed by the word "LEXUS" in its signature typeface. In the middle section, four Lexus vehicles are shown from a front-three-quarter perspective, arranged in a slightly overlapping row. From left to right, they include a silver SUV, a white sedan, a silver compact SUV, and another white SUV. The bottom half of the ad contains Korean text and English text. The Korean text reads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followed by the English translation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A dark gray horizontal bar at the bottom lef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and the address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To the right of this bar is a photograph of three people—two men and one woman—standing together in what appears to be a dealership setting. The man on the left is wearing a suit and tie, the woman in the middle is wearing a white blouse, and the man on the right is also in a suit and tie.

방위비 협상 바이든과 끝내도, 트럼프 집권 땀 뒤집힐 수도

〈한국 분담금〉

타임 인터뷰서 한국에 증액 압박
국방수권법에 2만8500명 못박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30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9년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때 한국 정부에 기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다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흔들며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며 “저는 한국이 4만 명의 병력(실제 주한미군은 2만8500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을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출신인 스톰리 대니얼스에게 과거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막음 돈’을 회삿돈으로 주고 관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어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4만 명의 병력이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며 “저는 한국에 이제 여러분이 나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사실 상 무상으로 지원했다”며 “그들은 수

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는데 제가 떠난 지금은 아마 거의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느냐”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타임은 “한국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 한-미는 정기적으로 SMA 협정을 맺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을 결정해 왔다.

재임 당시 ‘안보 무임승차론’을 앞세워 미군 주둔국 동맹들에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3년째인 2019년 11차 SMA 협상 당시 한국에 기존 분담금(약 8억달러)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했었다.

당시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고, 11차 SMA 협상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2021년 3월 타결됐다. 합의안 적용 첫 해인 2021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은 13.9%(약 8억달러)로 하고 2022~2025년엔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SMA 협상 첫 회의를 지난달 23~25일 하와이에서 열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1년8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차기 SMA 협상에 들어간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변수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양국이 12차 SMA 협상을 타결짓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길 경우 이전 합의를 뒤집고 새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 개정 때 현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을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게 했다. 미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뜻으로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감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견제 목적도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건 미국 국익에 반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의회에서도 현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박현주 기자

전기차, 구매 1년만에 가격 47%까지 하락

전기차(EV)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부 모델은 1년 후 잔존가치가 신차 가격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정보매체 아이씨카스가 최근 발표한 1년 후 잔존가치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개스차, 하이브리드(HEV), EV를 포함한 전체 평균 감가율이 신차대비 12.8%(5778달러)인데 반해 일부 EV는 최대 50%에 육박했다.

가치 급락 모델들을 살펴보면 벤츠 EQS는 1년 후 신차 가격의 47.8%인 6만5143달러가 떨어져 감가율 낙폭이 가장 컸다.

2위는 1년 만에 45.7%인 1만5786달러가 떨어진 닛산 리프가 차지했으며 기아 EV6가 33.3%(1만8081달러)로 3위



일부 전기차 모델의 경우 신차보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를 기록했다.

각각 32.9%씩 하락한 현대 아이오닉 5(1만6805달러)와 폭스웨겐 ID.4(1만5609달러)가 4위, 5위에 올랐다.

포드 머스탱 마하 E도 감가율이 29.8%(1만6364달러)에 달했으며 세볼레 볼트 EUV와 볼트 EV가 각각

28.2%(9151달러), 28%(8633달러) 떨어지며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1년 만에 잔존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EV 모델들의 경우에는 신차보다 중고차를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동차전문매체 톱스피드는 기아 EV6를 예로 들어 역동적인 디자인에 고속 충전, 첨단 기술, 편의 사양 등을 갖췄다면서 1년 후 잔존가치가 신차의 약 3분의 2로 떨어지기 때문에 신차보다는 1년 된 중고차 구매를 추천했다.

특히 닛산 리프의 경우 시판 EV 중 가장 저렴한 모델 중 하나지만 1년 후 46% 가까이 가치가 떨어지므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전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동성결혼 주례 목사 감리교 징계 안한다

미국연합감리교단(이하 UMC)이 본격적으로 성 소수자 포용 정책을 수용한다. 그동안 이를 반대하는 교회들의 탈퇴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향후 UMC내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UMC는 3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총회에서 동성 결혼을 집례한 목회자를 징계하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UMC에서는 목회자가 동성 결혼을 집례하더라도 징계받지 않게 된다.

폐지안은 대의원 투표에서 찬성 667표(반대 54표)를 받아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이 밖에도 UMC는 동성 결혼 집례 목회자 징계 규정 폐지는 물론 성 소수자 지원 사역에 대한 재정 지원 금지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UMC는 성소수자에 대한 목사 안수를 금지하

고 있다.

AP통신은 오는 3일까지 진행될 총회에서는 성소수자 성직자, 동성 결혼 금지 조항 등과 관련한 투표 등이 예정돼 있어 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30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찬성표는 이번 총회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며 “성소수자 수용 정책은 특히 보수적인 교회들의 탈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총회에 앞서 이미 UMC내에서는 7600개 이상의 교회가 교단 정책에 반발, 탈퇴를 결정했었다. 한인 감리교회들 역시 탈퇴가 잇따르는 상황이었다. 특히 탈퇴한 한인 교회들은 새로운 보수 감리교단인 ‘글로벌감리교단(GMC)’을 세워 다시 모이고 있다.

장열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맞춤 융자 & 주택대출
맞춤 융자 & 주택대출
주책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SNC
Neurology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M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D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870; PA 106923; FL MLD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역조물)
웨일리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리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국무부, 하마스에 휴전안 수용 촉구 “지금 휴전할 때”

토니 블링컨(사진 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방문해 하마스에 가자지구 휴전안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텔아비브에서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인질들을 귀환시키는 휴전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데 결연하다”며 “휴전이 성사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마스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타임스 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휴전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우리가 말했듯이 지연도, 변명도 안 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휴전 합의를 통해 가자지구에도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 식수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블링컨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7 번째라고 AP 통신이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다. 그는



전날 요르단 암만의 하심 자선 기구 창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가자지구 구호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인도주의 물품 수송을 위해 다시 문을 연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인근 아슈도드 항구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 협상 대표단을 파견했던 하마스는 국제사회의 중재로 마련된 휴전안을 검토한 뒤 돌아갔으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마련해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최고위급 이스라엘 관리는 AFP 통신에 “우리는 5월 1일 밤까지 하마스의 응답을 기다릴 것이며 이후 휴전 합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 측이 검토한 휴전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연준, 금리 5.25~5.50%로 6연속 동결

“최근 물가 목표 향한 추가 진전 부족…인플레이션에 고도로 주의”
연준, 양적 긴축 속도 조절…“월별 국채 상환 한도 250억 달러로 축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 기준 금리를 현행 연간 5.25~5.50%로 또 동결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최근 둔화세가 정체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시점 및 횟수 등에 대한 시장의 신중론이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 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5.5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까지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온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이날까지 6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이번 결정과 관련,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면서 “고용증가세는 여전히 강하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달간 위원회의 물가 목표인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고도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highly



기자회견 하는 파월 연준 의장

attentive) 있다”고 밝혔다.

연준의 이런 평가는 3월 회의 때와 비교해 “최근 물가 목표인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최근 경제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 2월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이 커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16일에도 “최근 지표는 올해 현재까지 2% 물가 목표로 복귀하는 데 추가적인 진전의 부족(lack of further progress)

을 보여준다”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수준을 필요한 만큼 길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준은 지난 3월 회의 때는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을 4.6%(중간값)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시에는 연내 3차례 정도 금리인하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근에는 시장에서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선물시장에서는 올해 한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만 예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6월부터 양적 긴축(QT) 속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 감소 속도를 줄일 것”이라면서 “기관 부채 및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는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국채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불리는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연준이 QT 속도를 줄이기로 한 것은 그만큼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한편 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로 한국(연 3.50%)과 금리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포인트가 유지됐다.

3월 구인 약 850만건…여전히 높은수준

미국의 지난 3월 구인 건수가 약 850만 개를 기록하며 3년여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노동부는 1일 3월 구인 건수가 848만 8천 개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월의 881만 3천 개에 비해 약 3.7% 감소한 것이며, 전년 동월의 962만 3천 개에 비해서는 11.9% 줄어든 것이다. 또한 이번 3월 구인 건수는 2022년 3월의 역대 최고치인 1천220만 개에서 많이 감소한 것이라 2021년 2월 이래 최저치다.

하지만 2020년까지는 월간 구인건수 800만 건을 초과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국은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월 직장을 그만둔 미국인 수는 약 520만 명으로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줄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3월 채용은 550만건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AP통신은 구인 건수가 감소했지만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 추



이는 강력한 미국 노동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22년 3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을 때, 높은 차입 비용이 경제를 침체로 밀어 넣고 실업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속된 금리 인상 속에서도 경제는 성장했고, 고용도 유지됐다.

미국의 실업률은 26개월 연속 4%를 하회하고 있는데 이는 1960년대 이후 가장 긴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억제 면에서 올해 들어 기대와 다른 고킨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뒤로 미뤄지는 양상이다.

틱톡측 반발에도 미국인 절반은 금지 지지

미국 정치권이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사용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강제매각법의 입법을 마친 가운데 미국 국민 절반이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상당수의 미국인은 중국 정부가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터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달 29~30일 미국 성인 1천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가 틱톡 금지에 찬성했다. 반대는 32%였다. 연령대 별로는 40대 이상이 60% 정도가 틱톡 금지를 지지한 반면 18~39세 응답자는 40% 정도만 이에 찬성했다.

중국 정부가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을 사용해 미국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질문에 58%는 동의했으며 13%는 반대했다.

전체 응답자의 46%는 또 중국이 틱톡을 사용해 미국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있다고 봤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틱톡 강제 매각법 서명 이후에도 틱톡을 계속 사용해 비판받은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60%는 미국의 선거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틱톡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 금지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나 틱톡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내에서 틱톡은 18세 미만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이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앞서 미국 상·하원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안보 지원 패키지 법안으로 틱톡 강제 매각법도 처리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명했다.

법은 최대 1년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틱톡은 내년 1월 19일까지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미국 대통령이 판단해 이 기한을 3개월 추가로 연장해줄 수 있다.

그러나 틱톡은 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실제 틱톡이 금지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메디케어 최초 카드 신청 및 플랜 등록 안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사전 연락 바랍니다.)
8300 Boone Blvd. #500, Vienna, VA

1959년생,
이주하신 분/메디케이드 해당자/직장보험
복잡해 보이는 메디케어,
쉽고 간결하게 알려 드립니다.

저도 메디케어 해당자 입니다.

제 보험을 찾는 마음으로 도와 드립니다.

염 은호 종합 보험
(571) 232-5022

8300 Boone Blvd #500, Vienna, VA 22182

DAONG GROUP LLC
TAX & ACCOUNTING SERVICES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VA Text / Phone :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e.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hocpa@gmail.com

물가안정
58탄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MAY 2nd – MAY 9th, 2024

순돈육 100%

청정원 런치미트 만능요리사

CHUNG JUNG ONE LUNCHEON MEAT PORK

각종 찌개에도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맛으로 볶음밥, 구이류, 밥반찬으로도 딱이에요



2 EA(12 OZ)
FOR 5.00

Chemistry 101
1011 University St.
Cambridge, MA 02138

Address: 92-10177-10000
 10000-10000-10000
 10000-10000-10000

0000-0001-9000-0000

CUCKOO

쿠쿠 5월 가정의 달

ONLY 쿠쿠 프로모션

기간 | 04.26.2024 - 05.28.2024

조건 | 기간 내 주문 & 5월 내 설치

쿠쿠 최초! 최대! 최고가의 밥솥 증정!
& 쿠쿠 제품 최대 할인!

증정품
6-Cup HP Twin Pressure
Rice Cooker
\$330 VALUE



CRP-ST0609FW

CRP-LHTR0609FW

쿠쿠라서 가능한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증정품
6-Cup IH Twin Pressure
Rice Cooker
\$550 VALUE

일시불 최대 40% 할인



*제품별 할인율 다름

프리미엄 제품 구매 시
20% 할인 ◦ 블렌더 증정
프리미엄 2nd 제품 부터
40% 할인 ◦ 트윈프레서
밥솥 증정

렌탈 시 다운페이 면제 & 최고급 프리미엄 쿠쿠 밥솥

타사 고객 보상 혜택은 또 추가 선물 증정

- 1건 렌탈 시 쿠쿠 블렌더 증정!
- 2건 렌탈 시 트윈 프레서 밥솥 증정!
- 3건 이상 렌탈 시 프리미엄 IH 압력밥솥 증정!



증정품

쿠쿠 시그니처 제품 인상전 가격으로 특별 할인

일시불 / 렌탈
시그니처 제품
CP-P011G / CP-P011T / CP-MN031BK



쿠쿠 리네이처 안마의자 할인



증정품

일시불
최대
\$1,500 할인 ◦ LED MASK
증정
렌탈 시
3D
다운페이 면제
-\$500 ◦ LED MASK
증정
3D / 4D

Virginia

리빙스토리 Centreville 703-975-1313 하이트론즈 Centreville 571-404-4132
건강마을 Centreville 703-712-7116

Maryland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888.700.0425 | CUCKOORENTAL.COM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윤석열 이탈층에 미친 영향, 명품백>이종섭>물가

선거는 수천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사회과학의 실험 무대로 볼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 연세대 교수)은 4월 24일 정치학자들을 초청해 ‘제22대 총선 표심 분석과 정치 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분석하는 첫 학술 행사였다. 이 자리에선 EAI가 총선 직후인 4월 11~15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유권자 1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선거 민심을 다각도로 조망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논문들이 대부분 전문적인 통계분석이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지만, 22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여러 가지 유의미한 시사점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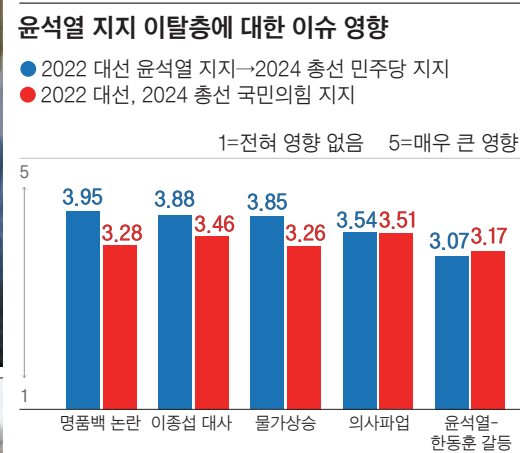
윤석열 지지층이 총선서 이탈한 이유

이번 조사에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의 75.4%만 이번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응답했다. 10.1%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다. 반면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의 79.4%가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고 했고, 5.1%가 국민의힘 후보로 이동했다. 여당 지지층보다 야당 지지층의 결속력이 강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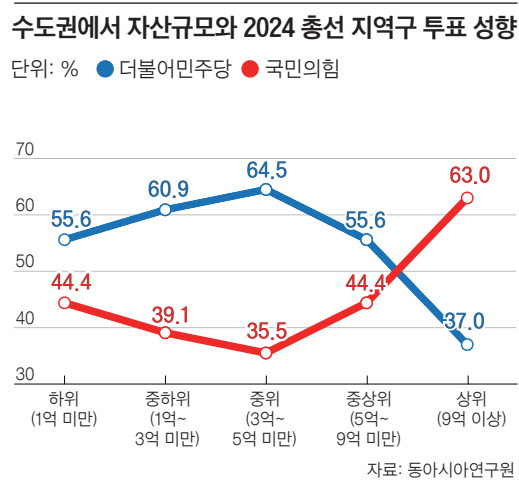
개별 이슈가 유권자들의 지지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력을 조사했을 때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은 ‘대선 윤석열 지지→총선 민주당 지지’ 그룹엔 영향력이 3.95(5점 척도, 1=전혀 영향 없음, 5=매우 큰 영향)로 나타났다. 이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과 황상무 수석 실언’이 3.88, ‘물가 상승’이 3.85, ‘의사 정원 확대와 의료계 반발’이 3.54의 순서였다.

반면 ‘대선·총선 계속 국민의힘 지지’ 그룹에 ‘김 여사 명품백 논란’의 영향력은 3.28에 그쳤다. ‘윤석열 지지→민주당 지지’ 그룹과 ‘계속 지지’ 그룹 간 영향력 지표 차이가 가장 큰 이슈가 ‘명품백 논란’이었다. ‘명품백 논란’ 하나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대통령 지지층 이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가 상승’ 이슈도 ‘계속 지지’ 그룹에선 영향력 지표가 3.26에 그쳐, ‘윤석열 지지→민주당 지지’ 그룹과 비교했을 때 ‘명품백 논란’과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 지표 차이가 나타났다. 선거 막판에 불거진 윤 대통령의 ‘대파 발언’ 논란이 미친 파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대 강원택(정치학) 교수는 “흥



1 도파 출국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전 호주대사. 2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퇴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3 대파 모양의 머리띠를 한 야당 지지자. 4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진상조사 규명 촉구 집회.



미로운 점은 이번 총선 국민의힘 투표층에서 윤 대통령 호감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클수록 국민의힘 지지가 커진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싫어서 국민의힘을 찍는 다’는 여의도의 속설이 통계학을 통해 입증됐다는 얘기다.

대선 때보다 떨어진 윤·이 호감도

EAI가 2022년 대선 당시 실시한 정당·후보 호감도 조사(가장 부정적 0, 가장 긍정적 10)에선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국민의힘 호감도 7.2, 윤석열 후보 호감도 7.6이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민주당 6.8, 이재명 후보 7.5가 나왔다. 지지 정당보다 지지 후보의 호감도가 더 높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국민의힘 7.3, 윤 대통령 6.0이 나왔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민주당 7.5, 이 대표 6.3이 나왔다. 대선 때와는 거꾸로 지지 정당보다 당 리더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진 것이다.

분석을 담당한 고려대 길정아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약 40% 정도가 당 호감도보다 윤 대통령의 호감도가 낮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약 45% 정도가 당 호감도보다 이 대표의 호감도가 낮았다”고 밝혔다. 총선 참패로 곤경에 처한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에게도 잠재적 불안 요소가 있는 셈이다.

공천 평가 민주당이 더 높아

윤석열 투표자 75.4% 여당 투표 이재명 투표자 79.4% 민주 투표

대선은 윤·이 호감도>소속 정당 총선은 윤·이 호감도<소속 정당

공천만족도 민주당 지지층 우위 조국당 지지율 자산 중상위 최고

이번 총선에선 ‘비명횡사, 천명횡재’라는 신조어가 유행했을 정도로 민주당의 비명계 확산 공천이 큰 이슈였다. 이 때문에 한때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세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각 당 공천에 대한 평가를 해보니 민주당 공천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는 33.9% 못했다는 평가는 50.5%지만,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22.0%가 잘했다, 60.8%가 못했다고 했다. 이런 경향은 당 지지층 내부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공천에 대해 4점 척도(1:매우 잘함, 2:잘한 편임, 3:못한 편임, 4:매우 못함)에서 평균 2.14점을 매겼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평균 2.52점을 매겼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공천만족도가 민주당 지지층보다 낮은 것이다. 무당파층에서도 민주당 공천 평가(3.11)가 국민의힘(3.25)보다 다소 높았다.

공천에 대한 평가는 실제 투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 공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한 그룹은 56.1%가 ‘민주당(지역구)+민주당(비례대표)’ 조합으로 투표했다. 이어 ‘민주당(지)+조국혁신당(비)’ 35.9%, ‘민주당(지)+기타 정당(비)’ 3.7%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 공천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그룹은 ‘민주당(지역구)+민주당(비례대표)’ 37.7%, ‘민주당(지)+조국혁신당(비)’ 34.0%, ‘민주당(지)+기타 정당(비)’ 11.3%, ‘국민의힘(지)+기타 정당(비)’ 9.4%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에서 이탈자가 꽤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공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한 그룹은 87.3%가 ‘국민의힘(지)+국민의힘(비)’ 조합으로 찍었다. 이어 ‘국민의힘(지)+기타 정당(비)’ 8.8%, ‘국민의힘(지)+개혁신당(비)’ 1.8%의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공천 평가가 부정적인 그룹은 ‘국민의힘(지)+국민의힘(비)’ 조합이 73.7%였고 ‘국민의힘(지)+기타 정당(비)’ 14.3%, ‘국민의힘(지)+개혁신당(비)’ 3.7%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보다 이탈 비율은 낮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이탈자가 생겼다.

성신여대 서현진(사회교육)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은 중앙당 공심위에 절대적 권한을 주는 방식이었다”며 “이런 하향식 공천은 민주적 대표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공천심사 기준 및 방식에 대한 사전 공개와 명문화화를 통해 공천과정의 정쟁화를 막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산 규모와 투표 성향

수도권 응답자들을 자산 규모에 따라 5단계(상위 9억원 이상, 중상위 5억~9억원, 중위 3억~5억원, 중하위 1억~3억원, 하위 1억원 미만, 설정 기준: 2023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분류하고 자산 규모와 투표 성향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지역구 투표에선 상위 민주 37.0% 국민의힘 63.0%, 중상위 민주 55.6% 국민의힘 44.4%, 중위 민주 64.5% 국민의힘 35.5%, 중하위 민주 60.9% 국민의힘 39.1%, 하위 민주 55.6% 국민의힘 44.4%로 나타났다. 상위에서 중위까진 자산이 적을수록 민주당 지지가 높아지지만, 그 밑으로 가면 오히려 민주당 지지가 감소하는 패턴이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자산 규모에 따라 조국신당에 투표했다는 응답 비율은 21.1%(상)~34.0%(중상)~32.6%(중)~31.5%(중하)~20.0%(하)로 변화했다. 조국신당의 지지율이 자산 중상위 계층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분석을 담당한 서울대 정치학과 김수인(박사과정)씨는 “자산 상위 집단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연령 효과에 따른 착시가 생길 수 있어 50대 이상 유권자를 제외한 분석도 했는데, 여전히 자산 상위 집단에서 보수 정당 투표 성향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수도권 20~40대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선 자산을 제외하면 성별과 출신 지역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로 계층적 분열이 커질수록 보수 정당은 집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하 논설위원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진료 내용

- 레코드 치료, 사전근육안정화 치료
-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 메이들랜드 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 신경발달치료
-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 근육 통증치료
- 관절 / 근막이완치료
- 전기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소중한 가족 건강
우메켄 덕 좀 보세요

우메켄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소중한 분들께 최고의 제품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 6월 2일까지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이벤트 1

우메켄 전제품 중
동일제품 2개 구입 시

20
% 할인

이벤트 2

발효 미네랄 L칼슘
구입 시



Free
Gift

**L-칼슘(2달분)
무료 증정**

• 이벤트 1, 2 중복 적용 안됨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구입처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410)750•9656 • 모드니에(410)615•6167 • 힐링타운(443)878•9020 ■ CATONSVILLE • BESETO (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 (301)926•6307

여야 ‘이태원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 합의

특조위 직권조사·영장청구권 삭제
논란 큰 독소조항 없애고 국회 열어
야 “채상병특검법도 처리” 충돌 예고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이양수(국민의힘)·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양당은 쟁점 사항에서 각각 한발씩 물러나 합의를 이끌어냈다. 기존 법안에서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인, 여야가 각 4인씩 추천해 총 11인으로 꾸리기로 했던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몫 1인을 여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여야 각 4인씩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수정했다. 활동기한은 기존 법과 동일하게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여당은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특조위 설치 자체에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여권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28조·30조를 삭제하는 데 동의했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 합의사항 공동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다. 28조는 특조위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에 영장 청구를 의뢰하도록 한 30조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했었다.

박 수석은 “진상규명 기구가 여야 합의로 설치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활동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양보해 합의 처리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유가족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 이 수석도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주셨다”며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일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데,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늦추기는 어렵다”며 “내일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 수석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게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직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의 기습 처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의사일정 변경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올라올 경우 우리는 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민주당은 김 의장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라

디오 인터뷰에서 “의장이 4일부터 해외 순방을 가는데,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 처리되지 않으면 (순방에 같이) 가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방송인 김여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김진표 의장을 겨냥해 “개××”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박 당선인은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 있다. 이걸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가 “국민의힘, 윤 대통령 손 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자 박 당선인은 “박병석(전 의장)도 똑같은 놈들”이라고 했다. 김씨가 “놈들이라니요”라고 반문하자 박 당선인은 “놈이지 뭐.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며 “개××들이야 진짜. 민주당으로 김진표 북당 안 받아야 돼”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방송 시작 멘트가 없어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다”면서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다”고 썼다.

성지원·전민구 기자

윤 대통령, 내주 기자회견… 제2부속실·민정수석실 설치 고심

검사 출신 수석엔 여권도 부정적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에 열리는 공식 기자회견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본격적인 언론 소통 재개를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기자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

이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대통령실이 발표했던 제2부속실 설치 문제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자, 일종의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었는데 현재까지 관련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또 다른 숙제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필요성을 밝힌 민정수석 신설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현장 민심 수렴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민정비서관(신설)과 기존 공직기강·법률비서관을 한데

묶어 민정수석 산하에 두고 정부 12비서관을 정부비서관으로 통합, 국정상황실은 시민안전비서관실로 개칭해 정부수석실 산하로 옮기는 조직개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문제는 민정수석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이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진짜 민심을 듣겠다면서 전직 검사를 민정수석에 앉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나경원, 오세훈 만났다… “부담 팍팍” “너무 악착같이 하셔”

나경원(사진 오른쪽)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을 만났다.

나 당선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작구민 여러분들에게 드린 약속을 하루빨리 지키기 위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동작을 현안 정책건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오세훈 시장께서 웃으면서 ‘별써부터 너무 악착같이 하시는

것 아니냐’고도 하셨지만 동작구민과의 약속을 하루라도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악착같이’ 챙기겠다’고 부담을 팍팍 드리고 왔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제 핵심 공약인 서울 내부 순환 급행철도 구축 사업의 빠른 진행을 당부했다”며 “송실대부터 삼성역까지 한 번에 가는 ‘원라인 버스’와 흑석동 한강수변문화복합공원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남성역 2번 출구의 연장 건과 이수역-사당역 무빙워크 설치 요구도 전달했고 오 시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해줬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나경원의 약속은 진심이고, 실천”이라며 “동작구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 믿음과 성원에 동작의 확실한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서



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 당시, 나경원 후보에 당원 표심에서 밀려 예비경선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이후 일반시

민 여론조사 100%로 치러진 본경선에선 나 후보를 누르고 후보로 선출된바 있다.

배재성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로리건타운에서 3분, 실버스프링 뒤편 연인몰(H-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쉐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인몰(H-mart)과 쉐들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소를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HAPPY Mother's Day
마더스테이 감사 스페셜

안마의자 할부도 건강마을이 하면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48개월 특별한 비용으로 할부 구매하세요.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세계가 인정하는 바디프랜드를 경험하세요!

이제 전신 마사지는 물론
브레인 마사지까지!

MENTAL MASSAGE **브레인마사지 특허**

하루의 피로가 **짜~악**
구석구석 뭉친 근육이 **짜~악**
날아갈 것 같은 개운한 하루!
큰맘 먹고 사길
참 잘했어요!

자신 있게 선보이는 신제품
품격 있는 메디케어 안마의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보세요.

Pharaoh S II BLACK EDITION
파라오 S2
블랙 에디션의 특별함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특별한
기능이 더해져 더욱 품격 있는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레전드 마사지체어의 진화! 파라오S2 블랙에디션

일시를
구입시
반신욕기
드립니다.

팬텀2

필리스2

첫 발을 뗄때
마침내 자유
팬텀 로보!

PHANTOM ROBO

새로운 기술 ·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재미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께 마사지와 자전거타기 운동을 동시에!!

안마의자인가 의료기기인가

바디프랜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기기가 되다!

- * PEMF 전자자장으로 근육통 완화!
- *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한 견인!
- * 퇴행성 관절증 치료를 위한 견인!

PHANTOM Medical

KOREA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선정

어떤 공간에도 부담 없이 어우러지는 팔콘

더욱 완벽하게 진화한 바디프랜드만의 로봇워킹 테크놀로지
좌우 다리 독립구동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로봇워킹으로 스트레칭 효과 UP!

- 새로워진 8가지 로봇케어워킹 프로그램
- 손지압 패드
- 최적화된 XD 마사지 모듈
- 강화된 안전센서
-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쿼다이얼
- 3단계 온열
- 24가지 다양한 안마 프로그램
- 자동 체형 인식
- 폭신한 에어백
- 다리길이 자동 조절

Healthcare Robots
FALCON

지금껏 닿지 못했던 코어근육 스트레칭 효과!
로봇워킹 테크놀로지

Compact & Perfect
헬스케어로봇 팔콘
\$4,999

BODYFRIEND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
CES 혁신상 4년 연속 수상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특가 세일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속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Osaki PRO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뉴 프리미엄 4D 안마의자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휴표 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홈메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퀵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홈메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딘 지정 대리점

월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발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백백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돌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도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입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건강을 채우고 피로를 푸세요~

친명 유튜브로 혁신회의 ... “막말이 이재명 발등 찍을 것”

‘당선자 31명’ 혁신회의 해부
“이재명 정권 만들자” 친위대 역할
당 전체 이끌며 22대 국회 주도 예고
비명 “사실상 당내당” 불만 쏟아져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뒤 만난 건 당 지도부가 아니었다. 이 대표의 강성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와의 만찬이 열린 여의도의 한 식당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혁신회의가 22대 국회에서 꼭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4·10 총선에서 31명의 당선자를 낸 민주당의 ‘신(新)주류’가 된 혁신회의의 위상이 드러난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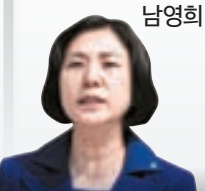
친명 유튜브, 구독자 합치면 200만
혁신회의는 지난해 6월 친명계 원외 조직으로 발족했다. 약진에는 친명 유튜브가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했다. 혁신회의 출범식부터 ‘새날’(현재 구독자 99만 명)과 ‘박시영tv’(51만 명, ‘서승만tv’(22만 명) 등이 생중계했고, 이후 혁신회의 멤버들은 이들 유튜브에 단골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다.


혁신회의-친명 유튜브의 협업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어진 지난해 9월 정점을 찍었다. 당시 혁신회의 멤버들은 “이 대표를 지키자”며 앞다퉈 동조 단식을 선언하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동조 단식하라”고 압박했다. 이런 과정이 유튜브에 중계되자 강성 지지층은 열광했다. 혁신회의 멤버들은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친명 유튜브’ 논란의 발원

비명계 의원들을 비판하며
“저들은 도려내야 할 고름이고,
뺏아 죽여야 할 바퀴벌레”

양문석 경기 안산갑 당선인
-2023년 3월
‘김성수 tv 성수대로’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을 겨냥해
“나이도 어린 놈의 자식,
뒤에서 칼을 쏘는 사람”

김우영 서울 은평을 당선인
-2024년 1월
‘나두점 tv’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 관련
“그 말(설치는 암컷)을
왜 못하나, 최강욱 징계 유감”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3년 11월
‘박시영 tv’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관련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들에게...”

김준혁 경기 수원정 당선인
-2022년 8월
‘김용민 tv’

원을 “매국노”라고 비난하며 이 대표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혁신회의가 “부화뇌동했던 기득권 세력을 공천혁명으로 이겨냈다”고 자평하는 ‘비명횡사’ 공천 역시 친명 유튜브가 판을 깔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회의와 유튜브가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촉구해 온 의원평가 하위 20%에 대한 ‘페널티 확대’는 결국 공천 물에 반영됐고, 박용진·윤영찬 등 비명계 탈락으로 이어졌다. 혁신회의의 멤버들은 경선 과정에서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 ‘자객’으로 나섰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현안이 생기면 혁신회의 멤버가 곧바로 유튜브에 출연해 전광석화처럼 지지층 여론을 움직였다”고 했다. 혁신회의와 친명 유튜브는 한몸처럼 움직였고, 혁신회의는 4·10 총선에 후보자 50명을 배출해 31명의 최종 당선자를 냈다.

당내에선 “혁신회의가 민주당 전체를 이끌어 22대 국회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회의의 ‘총선 평가 및 조직 전망’ 간담회는 그 예고편이었다. 이날 행사장엔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추미애·우원식·정성호 당선인과 차기 원내대표 단독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

이재명의 친위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지도부 핵심 관계자	김우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강득구 수석사무부총장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변호사 그룹	박균택 이재명 대표 변호인 김기표 김용 변호인 양부남 이재명 대표 변호인 이건태 정진상 변호인 김동아 정진상 변호인
대선 캠프	양문석 열린캠프(경선) 지역위원장 김현정 열린캠프(경선) 상황부실장 정진욱 열린캠프(경선) 대변인 권형엽 대전환 선대위 배우자실 부실장 이정환 대전환 선대위 대변인 문대림 대전환 선대위 제주특별단장 정준호 대전환 선대위 광주 담당 부승찬 대전환 선대위 제주 담당 장종태 대전환 선대위 일자리특별단
성남·경기 그룹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태준 전 경기주택공사 부사장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모경중 전 경기도 청년비서관 윤종근 전 경기도 정무수석 송재봉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채현일 전 대변인
이재명 지도부 당직·특보	김준혁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김현 당대표 언론특보 이광희 전 교육연수원 부원장 김문수 당대표 특보 황명선 전 대변인
기타 친명	김용민 정치검찰특별대책단 팀장 문금주 이재명 측근 이환주가 후원

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표를 구하고 있으니, 혁신회의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치켜세웠다.

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김우영 당선인은 “비명횡사”니 뭐니 했지만, 국민 분노가 총선에 분출돼 압도적 승리로 이어졌다”며 “무기력증과 계파 세습을 타파하려는 도전정신이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성추행 의혹 등 논란 끝에 불출마했던 강위원 공동대표는 행사 직후 “조직을 확대해 6월 1일 ‘2기 혁신회의’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며 “조만간 이 대표의 연임 관련 의견이나 국회의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등 날카로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일각 “중도층 잡기 어려워져” 우려
혁신회의는 원내 31인을 중심으로 ‘협력 의원단’을 조직해 원외 멤버들과 정책·법안을 상시 논의하고, 원외에서는 풀뿌리 지역 조직과 직능·부문별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 대표는 “당원들이 댓글을 달고 투표하는 수준을 넘어 혁신회의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당내 비명계 일각에선 “사실상 ‘당내 당’으로서 여론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수도권 의원)이란 말이 나온다.

강 대표는 1일 통화에서 “우리 목표는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라고 했다. 이들

은 민주당의 선봉대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혁신회의는 “그간의 민주당은 180석을 갖고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쫓불 개혁의 작기를 놓쳤다”고 했다. 다만 ‘신주류’라는 평가에는 “과하다”는 반응이다. 강 대표는 “혁신회의 멤버는 지평이 넓고 의견이 다양해 ‘민주주의 4.0’(친문계)이나 ‘더좋은 미래’(86그룹 주축 모임) 등과 비교하기 어렵다”며 “세보이는 건 ‘존경하는 의원님’ 같은 미사여구를 생략하고, 특정인과의 관계가 경직될 걸 각오하면서 시민의 문법으로 강하게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친명이 주도하는 정치 이슈에만 경도되면 대선에서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에서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혁신회의가 결국 이 대표의 발등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문석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김성수TV 성수대로’에서 “저들은 도려내야 할 고름이고 뺏아 죽여야 할 바퀴벌레”라고 비명계를 비난했었다. 김준혁 당선인이 과거 “김활란은 미군정 시기에 이대생을 미 장교들에게 성상납시켰다”고 발언한 곳도 친명 유튜브(김용민tv)였다.

손국희·김정재 기자

자동차 4월 수출 역대 최대 ... 대미 수출액도 사상 최대

(68억 달러)

(114억 달러)

한국 수출이 7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미국과 중국 수출 모두 상승세를 이어간 결과다.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8% 늘어난 562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월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올 1~4월 누적 무역수지는 106억 달러 흑자로, 이미 작년 전체 적자 규모(103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반도체 수출은 56.1% 급증한 99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IT 전방 산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오른 영향이다. 반도체를 포함해 디스플레이(16.3%), 무선통신(11.4%), 컴퓨터(76.2%) 등 4대 IT 품

목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치인 67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지난해보다 10.3% 증가한 수치다. 지난 2~3월엔 전기차 판매 증가세 둔화 등으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들어 다시 반등했다. 주요 수출시장인 북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창훈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미국 소비 시장이 워낙 견고하고, 특히 한국 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올

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바이오헬스(21.3%), 석유제품(19.0%), 석유화학(12.3%), 가전(9.4%), 선박(5.6%), 자동차 부품(2.9%), 석유(1.7%), 일반기계(1.5%)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3개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이차전지(-20.1%)와 철강(-5.7%) 등 2개 품목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이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4.3% 증가한 114억1000만 달

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대중 수출은 미국에 못 미치는 104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외에 중남미(38.2%), 일본(18.4%), 아세안(10.5%) 등에서 플러스를 보였지만, 유럽연합(EU) 수출은 7.1% 감소했다.


당분간 수출 플러스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위험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대표적이다.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 교역량 위축으로 한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세종=나상현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 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무분양자를 위한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아빠 출산휴가 20일, 빈곤 초등생엔 ‘꿈’ 장학금

(근무일 기준)

(대학 졸업까지 지원)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프로젝트 여성 육아부담 줄여 경력 잇게 도움 통합형 ISA 도입해 자산 형성 지원

배우자 출산 때 사용하는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 초등학생까지 포함한다.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에도 나선다. 교육과 자산 형성 기회를 늘려 이른바 ‘개전 용’이 더 나오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1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커졌는데 이를 노동·교육·자산 3가지 트랙 지원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실제 부모 소득이 5분위(상위 20%)인 자녀의 85%는 대학에 진학했는데 소득 1분위(하위 20%) 자녀의 대학진

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정보를 청년들에게 먼저 제공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는 이른바 ‘니트’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늘린다. 근무일 기준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면서다.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여성뿐 아니라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중단됐던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출산 관련 지원을 늘려 지난해 0.72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주력한다.

교육 측면에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 졸업 때까지 장학금

을 주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 5~6학년까지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현행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은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비중(현재 8%)도 늘리기로 했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통합형 ISA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ISA는 중개·신탁·일임형 중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합하면 직접 자산운용을 하면서도(중개·신탁형) 일부 금액은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일임형) 게 가능해진다. 다만 ISA 개편 등은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 급여의 일부를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세종=정진호 기자

국민 63% “1억 주면 애낳을 마음 생길것”

(아이 1인당)

권익위 출산지원금 설문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26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설문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정부가 출산한 산모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가”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8536명)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인원은 37.4%(5104명)였다. 현금 1억원을 지급할 경우 국가는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

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6%(8674명)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고, 36.4%(4966명)는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를 선택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을 할 것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최서인 기자



‘카르띠에, 시간의 결정’ 전시 개막 ‘카르띠에, 시간의 결정’ 전시가 개막한 1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내 전시장에서 관람객이 ‘힌두 네크리스’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전민규 기자

유니버설발레단 40주년 ... “이젠 한국발레 뿌리 내릴 때”

문훈숙 단장·강미선 수석무용수 “UBC, 한국 정서 담은 발레가 주무기 춘향 등 해외무대 서면 자부심 커져”

유니버설발레단(UBC)이 창단 40주년을 맞았다. 마흔살이 된 UBC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발레단체로 우뚝 섰다. ‘백조의 호수’와 같은 클래식은 물론 ‘심청’ ‘춘향’ ‘코리아이모션 정情’과 같이 한국 특유의 정서와 품위를 발레로 엮어낸 일군의 작품은 UBC가 일구어낸 쾌거다.

지난달 16일 창단 40주년 공연 ‘로미오와 줄리엣’ 연습이 한창인 UBC에서 발레단을 이끄는 문훈숙 단장과 줄리엣 역을 맡은 강미선 수석무용수를 만났다. 케네스 맥밀란 경 안무 버전으로 올라가는 공연은 5월 10~12일 예술의전당 무대를 수놓는다.



유니버설발레단(UBC)의 문훈숙(왼쪽) 단장. UBC 창단 40주년 기념 공연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을 연기하는 강미선 수석무용수.



장진영 기자

“발레하면 시집 못 간다”는 말이 돌았던 시절. 문훈숙 단장이 이젠 미소로 추억하는 때다. 문 단장은 “한때 한국은 발레의 불모지로 통했지만 이젠 세계 정상”이라고 말했다.

-UBC가 세계발레계에 갖는 의미는.

“‘춘향’과 ‘심청’을 해외 무대에 올렸을 때, 관객들 반응이 떠오른다. 당시 공연 전엔 ‘한국인 특유의 무다리 체형으로 발레가 가능하겠느냐’거나 ‘한국

적 소재는 발레와 안 어울린다’는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무대로 증명했다. 앞으로도 융복합 기술 등을 활용해 발레 장르의 외연을 넓혀가고 싶다.”

-50주년, 100주년의 UBC는 어떤 모습일까.

“씨앗이었던 한국 발레가 나무로 우뚝 섰는데, 뿌리를 더 견고히 내릴 때다. 미국 역시 각 지역 발레단이 튼튼하기에 ABT와 뉴욕시티발레단(NYCB) 등이 탄탄한 것처럼, 민관이 함께 아름다운 상상과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강미선 수석무용수는 지난해 최고의 영예인 브누아 드 라 당스(Benois de la Danse)를 수상했다. 이번 공연에서 금지된 사랑의 달콤쌉사름함을 연기하는 그는 줄리엣 그 자체였다.

-올해는 강 수석 UBC 입단 22주년이기도 하다.

“태어난 해 바로 이듬해에 UBC가 생겼으니,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다. 사실, 우리 무용수들은 발레단의 가장 마

지막 결과물이다. 우리가 무대에 서기 위해선 무대 옆 어두운 곳에서 의상을 한뼘한뼘 손질해주시는 분들, 무거운 막을 이동해주시는 분들, 조명을 비춰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한다. 그런 분들의 노고가 없으면 무용수도 없다.”

-UBC 무용수로서 느끼는 바는.

“해외 무대에 나갈 때마다 특히 UBC만의 한국 발레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 ‘심청’과 ‘춘향’을 출 때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독창적 작품이면서도 아름다운 발레를 레퍼토리로 갖고 있다는 것이 자부심이다.”

-브누아 드 라 당스 수상자로서 한국 관객과 정부 등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민간 발레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면 바랄 게 없겠다. 차세대를 위해서도 그렇다.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는데 설 수 있는 무대는 한정적이지, 아쉽다.”

전수진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우리말 바꾸기

‘겉까’의 띄어쓰기

“그런걸까”를 붙여 써야 할까, “그런 걸까”로 띄어 써야 할까.

“결까”의 띄어쓰기를 판단하려면 “결까”가 무엇의 줄임말인지 따져 보면 된다. “그런결까”에서 “결까”는 “것일까”의 줄임말이다(“거”는 “것”의 구어). “것”은 항상 띄어 써야 하므로 “그런 결까”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건지”나 “걸”도 그렇다. “그런건지”에서 “건지”는 “것인지”의 준말이므로 “그런 건지”로 띄어 써야 한다. “그런걸 왜 물어?”에서 “걸”은 “것을”의 준말이므로 “그런 걸 왜 물어?”라고 적어야 한다.

그렇다면 ‘곧 알게 될거야’의 ‘될거야’는 어떨까? ‘거야’ 역시 ‘것이야’의 준말이므로 ‘될 거야’로 띄어 써야 한다. “그런게 아니야”에서의 ‘게’도 마찬가지다. ‘것이’의 준말이므로 띄어쓰기를 해 ‘그런 게’로 표기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준말을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 진짜 어려운 것은 비슷하게 생긴 ‘아닐 낱’이다. ‘아닐낱’에서 ‘낱’을 ‘것을’로 바꾸어 보면 말이 되는 듯해 ‘아닐 낱’로 띄어쓰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때의 ‘갈’은 위의 예와는 다르다. ‘아닐갈’은 ‘아니+ㄹ갈’ 형태다. ‘ㄹ갈’은 추측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어미다.

“아닐걸” “너보다 키가 클걸”에서는 ‘르걸’
이 추측의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이때의 ‘걸’
은 띄어 써선 안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제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 고

심각한 어린이 무보험 문제



이종원
변호사

엔 알키 소장은 “메디케이드 자격 재심사(redetermination)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어린이 가운데 500만 명이 줄어들 상황”이라며 “이 중 4분의 3은 자격을 갖춰있음에도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을 잃은 어린이가 가장 많은 곳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주로 나타났다. 텍사스주에서는 130만 명의 어린이가 자격 재심사 절차 이후 더 이상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혜택을 잃은 어린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숫자다. 또한 플로리다주에서도 거의 50만 명의 어린이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었다.

하지만 어린이 건강보험 상실이 풀고 올 과정은 숫자 이상일 것이라는 게 비영리단체 '어린이파트너십' 마리아 알바레스 회장의 지적이다. 중가주 프리즈노에 거주하는 한 히스패닉계 학부모는 아픈 딸을 병원에 데려갔다가 “건강보험이 끊어졌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보

험 혜택 없는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기 때문이다. 알바레스 회장은 이 학부모는 메디케이드 자격 재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어린이가정센터의 알크 소장은 “절차상 이유로 어린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라고 경고한다. 건강보험이 없는 영유아는 적절한 치료나 백신을 받지 못해 어릴 때부터 병을 키우거나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이들이 만성질환을 가진 채 성장하면 결과적으로 사회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치권에서도 영유아 건강보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밝힌 올해 예산안 설명에서 “출생부터 6세까지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자”고 의회에 제안했다. 연방정부는 구체적으로 최대 9세까지 앞으로 3년간 지속적인 의료보험 보장 옵션도 제시했다고 알려 소장은 설명했다.

선거철을 맞이해 후보자들은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정치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끼칠 메디케이드와 건강보험 관련 공약에 대해 신경을 쓰는 후보는 많지 않다. 정치권의 요란한 이념 논쟁에 현혹되기보다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우리 자녀의 건강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할 때다.

J네트워크

베이징의 4월 손님



한우덕

동한 이유다.

프라보위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도 4월에 중국을 찾았다. 당선 후 첫 해외 방문국
으로 중국을 선택한 그는 임기 중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렇듯 마
코 패권 경쟁 속에서도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패권 경쟁의 당사자인 미국조차 재닛 옐런 재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베이징에 보내 메시지를 전하고, '적정'을 살폈다. 모두 4월에 벌어진 일이다.

한-중 관계는 아직도 한겨울이다. 외교가 막히니 경제 교류 역시 숨통이 트이지 않는다. 양국 간 산업 접점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지금 양국 관계를 ‘엔진 꺼진 채 표류하는 배’로 비유한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 5월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꺼진 엔진’을 살릴 계기가 마련될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적 존재라는 뜻이다. ‘라이벌’이기에 견제도 해야 하지만 파트너이기에 협력도 해야 한다는 게 솔츠 총리의 생각이다.

결국 경제다. 중국은 2016년 이후 줄곧 독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었다. 폭스바겐, BASF 등 주요 기업 대부분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 문제가 생겼다.

지난해 독일의 대 중국 수출은 4.2% 줄었다. 올 1분기에는 무려 16.6%나 감소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 없이는 지금의 경제 난국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게 솔츠 총리의 판단이다. 이번 방문에 BMW, BASF, 지멘스 등 기업인 CEO를 대거 대

올라프 솔트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건 지난 달 14일이다. 그런데 옆에 있어야 할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가 그였다. 시진핑(習近平)주석, 리창(李強)총리와와의 회담 때문에 외무장관은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푸틴(러시아)이 전쟁에서 이기면 시진핑과 같은 독재자에게 무슨 사인을 주겠느냐?” 지난해 9월 베어보크가 미국 방송사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던진 말이다.

독일 연정에서 녹색당을 대표하는 그에게 시주석은 ‘독재자’였다.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다.” 중국은 발끈했다. 방문단에서 외무장관 이름이 빠진 직접적인 이유다.

솔츠 총리는 외무장관을 배제하면서까지 중국 방문을 강행한 이유를 '균형'에서 찾는다. 독일은 지난해 채택한 '차이나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파트너, 경쟁자, 체제 라이벌'로 규정했다. 경제 협력의 파트너이자, 미래 산업의 경쟁자, 그러면서도 지정학적 적(敵)으로 대립하는 다중

‘호스티스 소설’ 밀어낸 『사람의 아들』… 1980년대 열었다



이문열, 시대를 쓰다(3)

총 300만 부 판매
첫 소설이 출세작

1980년대는 나의 전성기였다. 평단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반면, 독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누구보다 사랑받는 작가였다. 시대와 불화하고 있노라고 자조(自嘲)한 1990년대에도 내 소설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았다. 그 긴 밀월(蜜月)의 출발점이 내 첫 소설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은 1979년 출간 직후부터 무섭게 팔려나갔다. 지금까지 총 300만 부 팔린 것으로 추정한다. 내 작품들 가운데 단일 제명(題名)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나는 자랑도, 부끄러움도 가장 많은 책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아들』 인기는 내게도 수수께끼

『사람의 아들』뿐 아니라 『젊은 날의 초상』(1981) 등 후속작들의 반응도 좋아서였겠지만, 1991년 딱딱한 평론집 『이문열 논문(論)』까지 1만 부 넘게 팔리자 출판가에 “이문열 이름만 들어가도 책이 나간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고 들었다.

덕분에 문학 강연을 하면 『사람의 아들』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소설을 쓰게 됐는지 궁금해한다. 왜 그렇게 인기 있었는지 묻는 사람도 있다. 내게도 수수께끼다. 결코 읽기 쉬운 책이 아니다. 내가 쓰기 힘들었던 만큼 당연히 독자에게도 어려웠을 것이다.

몇 가지 집작은 있다. 1970년대 후반 소설 시장은 크게 두 부류가 품미했다.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1973), 조해일의 『겨울 여자』(1976)처럼 술집 여급을 등장시킨 이른바 ‘호스티스 소설’,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1977),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1978) 등 당시 ‘근로자 소설’이라고 칭한 소설들이 또 한 부류였다.

『사람의 아들』은 엉뚱하게도 종교소설이었다. 시인 황지우, 문학평론가 진형준, 영화감독 이창동, 출판인 심만수, 네 사람이 함께 편집해 1991년 출간한 내 첫 산문집 『사색』의 허두(虛頭)에 편집자들은 이런 문장을 써두었다.

“땅 위에 것에, 풍속과 윤리에 우리 사회 모두가 몰두해 있을 때 그는 어쩌서 신(神)을 발언했을까.”

그만큼 『사람의 아들』이 당시 낯설었다는 이야기다. 『사람의 아들』은 공교롭게 김성동(2022년 작고)의 불교소설인 『만다라』와 함께 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순위를 장식했다. 호스티스 소



1987년 『사람의 아들』을 장편으로 개작한 이문열씨가 경기도 이천의 작업실 부근에서 잡지 인터뷰하는 모습. 이씨는 그 전해 이천으로 내려와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사진 이재유]

『겨울 여자』같은 사회풍속 소설 『사람의 아들』 이후 점차 자취 감춰 “이문열 이름만 들어가도 팔린다” 독자들과 긴 밀월의 출발점 때

설은 차츰 자취를 감췄다. 내 소설이 호스티스 소설을 밀어낸 셈이다. 1970년대 대중소설이 퇴조하고, 새로운 개성을 요구하는 1980년대 시장이 열리는 시점이었다.

결국 기독교의 힘 때문이 아니었겠느냐고 답하는 수도 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예수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에 사실 반기독교적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읽힌 것 같다.

주(註) 달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은 것도 한 요인이다. 『사람의 아들』에는 각주가 무려 347개나 된다. 실은 내가 주 달린 책을 좋아한다.

『사람의 아들』 처음에는 서사시

『사람의 아들』은 처음에는 소설이 아니었다. 서사시의 형식이었다. 서울 사대 문학회 활동을 하던 스무 살 무렵이었다. 니체의 『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다.

“십자가를 진 예수가 집 앞에서 쉬는 것을 거부한 죄로 저주를 받아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을 배회해야 한다는 전설적 인물.”

독일인 아하스 페르츠를 설명하는 짧은 각주였다. 이 문장에서 출발해 200자 원고지 40~50장 분량의 서사시를 썼다. 소설 『사람의 아들』에서처럼 아하스 페르츠라는 구두 만드는 화공(靴工)이 2000년 전 자신의 집 앞에서

쉬려는 어떤 사람을 쉬지 못하게 했다. 이는 이유로 추운 겨울날 한 손에는 구두를, 또 다른 손에는 구두칼을 쥐고 방황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국일보인이 신춘문에 시 부문에 응모하기도 했다.

늦은 입대를 앞둔 1973년 서양 사상의 전체적인 흐름이 궁금해졌다. 그리스·로마의 헬레니즘과 기독교가 뿌리를 댄 헤브라이즘(유대교 전통)이 두 개의 큰 흐름이다. 교회를 연좌제(緣坐制)의 도피처로 생각했던 어머니 덕분에 성경과도 꽤 친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신약은 일주일, 구약은 두 달쯤 걸려 통독(通讀)했던 것 같다. 신학대사전까지 뒤적거렸다. 성경 이야기만으로 이야기를 쓸 수 있겠다 싶었다.

유대교에 회의를 느낀 젊은 구도자 아하스 페르츠의 파란만장한 종교 편력을 200자 원고지 400장 분량에 담아 월간 문학사상 중편소설 공모에 접수하고 입대했다. 당시 제목은 ‘인자(人子)’, 지금의 ‘사람의 아들’과 같은 뜻이다. 첫 휴가를 나오자마자 서점으로 달려가 확인한 잡지의 발표 지면에 내 이름

73년 제목 ‘인자’로 공모했다 탈락 79년 추리소설처럼 고쳐 쓴 뒤 제목도 바뀌 ‘오늘의 작가상’ 받아 87년 개정판 내며 종교부분 보강

은 없었다. ‘인자’는 예심도 통과하지 못했다.

1979년 초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다음 다시 기회가 왔다. 계간지 ‘세계의 문학’에서 작품 청탁을 했다. 시간이 촉박해 ‘인자’를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추리소설처럼 꾸미기로 했다. 현대의 민요집 살인사건을 그림 틀로, 아하스 페르츠의 종교적 방황을 그림으로 삼는, 액자소설로 고쳐 썼다. 분량을 200자 원고지 500장으로 늘리고 제목도 지금의 ‘사람의 아들’로 바꿨다.

매일신문 기자 경험 살려 경찰서 묘사

『사람의 아들』은 경찰서 형사계 풍경으로 시작한다. 긴 가죽 장화를 신었다는 이유로 나중에 조동팔로 밝혀진 피의자로부터 엉덩이를 걷어차인 여성 피해자를 쳐다보던 남경호 경사가 몇 달 전 접수한 포르노 필름을 떠올리며 남성의 욕망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나는 한 해 전인 1978년 대구의 유력자인 매일신문 기자로 입사했다. 일간지 기자가 되면 일본식 용어로 사쓰마와리(察網)라고 해서 경찰서를

1 1979년 6월 출간된 『사람의 아들』 초판본. 종교시장에서 40만원에 거래된다. 2 1975년 개봉해 당시로는 경이적인 36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포스터. 1973년 조선작의 동명의 장편소설을 소설가 김승옥이 각색했다.

돌며 사건·사고를 쟁기는 훈련을 받는다. 일종의 수습기자 교육의 일환이다. 『사람의 아들』에서 경찰과 관련된 장면들은 그 경험이 바탕이 된 것이다.

민음사는 급하게 수정해 보낸 ‘사람의 아들’ 원고를 ‘세계의 문학’ 불호에 심는 대신 오늘의 작가상 응모작으로 돌리겠다고 일방적인 통보처럼 알려왔다. 그해 오늘의 작가상 심사위원은 소설가 최인훈, 문학평론가 유종호·김우창 세 분이였다. 심사위원 가운데 너무 탐정소설 같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다. 결국 민음사 박맹호(2017년 작고) 사장이 밀어붙였다고 한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이유(授賞理由)에서 『사람의 아들』이 주제 의식이 단단하고 진지해 고전적 품위를 성취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플롯 상의 난점” 역시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호 경사가 민요집 살인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액자 부분에서 문체가 느슨해져 맥락이 느껴지기조차 하다는 것이었다.

드라마 ‘수사반장’ 같은 겉옷 입혀 성공

내 생각은 달랐다. 당시 인기 있던 TV 드라마 ‘수사반장’ 같은 겉옷을 입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소설이다. 구성상의 난점은 실은 나도 불만이었다. 책이 성공을 거듭할수록 아하스 페르츠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추리소설이라는 당의정(糖衣錠)을 입힌 것은 아닌가 후회스럽기도 했다.

1987년 장편 개정판을 낼 때 갑작스러웠던 주인공 민요집의 기독교로의 회귀(回歸)를 자연스럽게 손보고, 얼버무린 듯해 아쉬웠던 아하스 페르츠의 종교 편력 부분을 꽤 두텁게 늘린 이유다. 그러기 위해 비교종교학·문화인류학에 관한 책을 100권 가량 읽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해 아하스 페르츠가 문제 삼았던 기독교 교리는 과연 카인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냐는 점이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의 살의(殺意)가 하느님에게서 왔다면 하느님은 카인을 벌할 수 없다. 그는 오히려 하느님의 예정대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 된다. 그게 아니라 카인의 살의가 하느님 아닌 다른 곳에서 왔다면 하느님의 전지전능에 흡입이 난다. 하느님이 못 미치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작의(作意)를 묻는 분들께 나는 이렇게 되물곤 했다.

“나는 성경의 교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당신들은 어떤신지요?”

21세기 독자들에게 다시 묻고 싶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종합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Brown University BA Degree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시 설

윤·이 회담 끝나자마자 입법 폭주, 민주당 협치 의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처리할 태세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고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 호법과 노란봉투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처리를 베풀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가 어제 전격 합의를 끌어냈 다.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 입장을 수용하 되 특조위 권한은 국민의힘 주장대로 당초 안보다 축소해 타협을 도출했다. 정치권의 합의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요구한 유족 들 뜻대로 여야가 타 협을 이룬 점에선 의 미가 있다.

하지만 다른 쟁점 법 안들에 대해선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간 합의가 이뤄져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김 의장이 오늘 본회 의를 열지 않으면 4일 의장의 미주 순방길에 홍익표 원 내대표가 동행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폭주는 사흘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결과물 없이 끝난 회담이지만 협치의 물꼬를 튼 출발 점으로 의미가 작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회담 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쟁점 법안들만 콕 찌 어 강행 처리에 나섰다. 이번 국회 끝까지 정부·여당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줄어든 22대 국회는 민주당 의 독주가 더 심해질 게 명약관화하다. 여기에는 ‘윤석 열 정권 심판’을 내걸고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에 선명성 경쟁이 불붙으면 여야 대치는 극 에 달할 것이다.

이에 더해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다선 의 원들마저 친명계의 지지를 얻겠다고 의장의 중립 원칙 을 부인하는 극언을 쏟아내고 있다. 5선 정성호 의원은 “협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6선 추미애 당 선인은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고까지 했 다. 22대 국회 최고령 의원이 될 박지원 당선 인은 유튜브에서 “김진표 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직권상정

하지 않고 해의 순방 간다”며 ‘개××’ ‘놈’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국회의장 직은 사회 통합과 대화·타협이 특 성인 의회주의의 표상으로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게 옳 다. 그럼에도 이를 겁박하는 문화가 민주당의 관행으 로 자리 잡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될 뿐이다.

여든, 아든 상식에서 벗어난 폭거를 일삼으면 국민 은 반드시 회초리를 들게 돼 있다. 민주당이 지지율 낮 은 대통령과 지리멸렬 여당을 상대로 마음껏 입법을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면 총선 민심을 잘 헤아려 폭주 대신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대통령은 아직도 소통을 모른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회담의 승자는 이 대표다. 이 대표는 퇴장하는 취재진을 붙잡아 두고 15분간에 걸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전 국민 민생 회복지원금 25만원을 주자고 했고,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도 요구했다. 잦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도 요청했다. “가족 등 주변 인 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도 거론했다.

회담에 앞서 혼자만 준비된 원고를 읽은 이 대표의 돌발 행동은 반칙에 가깝다. 그로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의 발언 영상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았고, 지지자들은 “역시 이재명”이라며 열광하고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 쪽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언론 앞에서 말하지 않았다. 비공개 회담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발언량 비율이 85대15라고 한다. 발언 중 극히 일부만 배석자들의 전언을 통해 알려졌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국정 현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효과 를 무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그걸 극대 화했고, 윤 대통령은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가령 민생회복지원금만 해도 왜 전 국민 지원금이 민생에 도리어 독이 되는지 국민에게 알릴 절호의 기회였다. 벌써 지난해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빚을 내 현금을 나눠준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형편도 안 된다. 그러나 알려진 설명은 충분치 않았다. “더 크게 지원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재정이 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가 단칼에 잘랐다”는 발언 정도가 눈길을 끌었다.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야당 대표의 청을 대통령이 박탈하게 물리친 형국이 되고 말았다.

채 상병 특검과 김 여사 문제는 본회

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지 만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사 안들이었다.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베풀고 있지 않나. 사실 4·10 총선에서 민심 이 분노한 대목 중 하나는 윤 정부에서 국민 상식과 어긋나는 일이 잇따른다는 점, 그런데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었다.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내보낸 것,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도 그 중 일부였다. 국민의 궁금증과 의구심은 이번에도 해소되지 못했다.

국민연금 논의는 특히 아쉬운 대목이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처리 독려를 요청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 안이다. 소득 보장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2093년 누적 적자가 702조원 증가하는 등 미래 세대 부담이 기하급

영수 회담 정치 복원 지켜볼 일

윤 대통령, 의혹에 더 솔직해야

국민 지지가 여소야대 정국 해법

수적으로 커져 상당수 전문가로부터 ‘개악’이란 비판을 받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도 지속 가능성을 우려한다. 찬반이 맞서는 만큼 이번 회담이 절충점을 찾는 자리가 돼야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미래 세대의 짐을 줄여주는 쪽으로 수정·보완하자고 이 대표를 설득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시간은 없는데 귀한 찬스가 날아갔다.

윤·이 회담이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일단 1일 첫 성과가 나왔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보와 타협의 결과다. 그러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되면 정치는 다시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아썸든 윤 대통령 앞에는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 거대 야당(민주당 175석, 야권 전체 192석)이라는 22대 국회의 현실은 윤 대통령의 많은 구상을 좌절시킬 것이다. 길이 없지는 않다. 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결국 국민 지지에서 나온다.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윤 정권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수석는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l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기자제보 및 기사 관련 불만·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전담 기자제보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読売新聞,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국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9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 예고 트럼프… 모든 리스크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발간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들(한국)은 아마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paying very little)”이라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그들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고도 했다.

그가 대선 레이스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이 집권할 경우 한국도 ‘흥정’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5년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수준을 정한다. 현재 한국은 2021년 합의에 따라 당시 1조1833억원을 기준으로 삼고, 다음 SMA를 체결할 때까지 매년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려준다. 트럼프 정부는 2019년 제11차 SMA 협상 때 당시 한국의 연간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9000억원)로 증액을 요구했었다는 게 외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50억 달러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우리 입장에서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니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다, 한국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미·일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안보의 핵심인 동맹의 방어적 군사력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거나, 한·미 동맹보다 북·미 직거래에 나선다면 가뜰이나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안보의 위기는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숫자를 3만5000명이라고 부풀리거나 “한국이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 그의 이런 언급이 의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보를 돈과 직결시켰다는 뜻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미국 대선 결과는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초박빙 상황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트럼프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 미리 미리 트럼프 캠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잘못된 사실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가동해야 한다.

지난달 시작한 SMA를 조기에 매듭짓고,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동맹 안보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다. 정치권 역시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초당적 대미 외교 지원에 나서야 마땅하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채용

미동부 투어 가이드

인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UNITED

중국국제항공

AIR CANAD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입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관광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2024년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낌없이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 \$2990+항공

2차 6/18-6/28 (영어가이드) 3차 9/24-10/4 **마감**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 (단풍특선)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

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특선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선

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롯데호텔 제주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그랜드 조선 부산

고국 1~5차 모두 제주 빼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다낭 3박+고국 7박 (노을선)

1차 5/18-5/29 \$3090+항공

3차 11/9-11/20 \$3090+항공

일본 3박+고국 7박

2차 5/21-6/1 \$3590+항공

4차 11/12-11/23 \$3590+항공

연합상품

3박 4일 **세남권** \$899+항공 **일출발**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일출발**

5박 6일 **세남+제주** \$1499+항공 **일출발**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일출발**

3박 4일 **동경** \$999+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5/03~5/12 **바르셀로나&지중해 크루즈** **대강**

9박 10일 \$43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대강**

5/07~5/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대강**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대강**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56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8박 9일 \$3990+항공 **대강**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영어가이드)**

10박11일 \$2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대강**

5박 6일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대강**

인사이드 \$1990~부터(항공포함)

발코니 \$2590~부터(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대강**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대강**

10박11일 \$29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대강**

10박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10/14~10/25 **오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대강**

10박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10일 \$1190(인사이드)

10/22~10/31 **터키 성지순례(아시아 7교회)**

8박 9일 \$1990+항공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풍특선)**

10박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3590+항공

11/12~11/25 **아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14일(시내산) \$3980+항공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11일 \$298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TMCI

고국 건강 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현대아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워포사원, 콜로세움, 파타야 야시장, 산호초,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랙킹, 약어농장, 백년배위공원, 태국특산물

푸켓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팡미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스, 파동 야시장, 피파시, 왓찰롱사원, 코끼리 트랙킹

하노이/하롱베이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명묘, 생월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다낭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봉강, 일본내원고, 전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성당

대만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궁궐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산제 야시장, 서문정거리, 태로산협곡, 화련 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아루레향 국립공원, 자우펀거리

싱가폴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베이, 리버윈드스, 헨드스웨이 브릿지, 허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마리아언공원, 차이나타운, 센토사, 실로소비티

메모리얼 데이 특선

나이아가라

워터스글렌

자연을 주는 아름다움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여행!

미동부의 그랜드캐년, 레저위스 주립공원, 북아메리카 최대규모의 나이아가라 폭포(인개속너오 탐승)

2박 3일 5/25~5/27 \$650

뉴욕 특선

업그레이드 된 디렉스 호텔, 브루클린 덩보, 배스 허드슨 아드, 옛지전망대

1박 2일 5/26~5/27 \$450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일매주출발**

대행버스출발: 6/24, 7/22, 8/5

뉴욕

동부 명소 4박만 숙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2박 3일 \$650 **일매주출발**

대행버스출발: 7/22, 9/16, 10/7

뉴욕

미동부 베스트셀러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3박 4일 \$899 **일매주출발**

대행버스출발: 7/8, 9/23, 10/21

뉴욕

단풍관광

뉴욕

1박 2일 \$399

캠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450+항공 **일출발**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샌프란시스코

3박 4일 \$890+항공 **일매주출발**

옐로스톤

3박 4일 \$890+항공 **일매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일매주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일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MAY 2nd - MAY 9th, 2024



Tender & Flavorful

MARINATED
SHORT RIBS
LA GALBI
양념 LA갈비



U.S.D.A.
CHOICE

\$12.99
LB

HELLO!

LAUNDRY
DRYING RACK

헬로 빨래 건조대

(W)56 x (L)23 x (H)37 in

~~Reg. \$34.99~~

\$19.99



Shoe Holders

Flexible Rotation
Shafts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VIRGINIA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May 2, 2024 C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종증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3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봄맞이 대청소 어떻게 할까

예년보다 남가주의 봄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젠 완전한 봄이다.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매년 이맘때면 으레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이들에게도 대청소는 꽤나 부담스러운 ‘홈 프로젝트’다. 닦고 쓸고 털어내는 일이 육체적으로 꽤 힘이 많이 드는 탓도 있겠지만 대청소에 익숙하지 않거나 오랜만에 대청소라는 걸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그러나 청소 전문가들은 청소 요령 및 알맞은 청소 도구와 세제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빠르고 쉽게 대청소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봄맞이 대청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다.

◇청소용품 점검

대청소 시작 전 청소용품부터 점검하자. 일단 오래된 세제나 청소 용품은 과감하게 버리고 특히 독성 물질 함유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요즘은 가정용 친환경 세제 및 청소용품을 구입하기 쉬워 가능한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대청소 용품으로는 ▶극세사 천 ▶고무장갑 ▶먼지떨이개 ▶진공청소기 ▶다목적 세제 ▶식물성 오일 캐스틸 비누(Castile soap) ▶창문 및 유리 전용 클리너 ▶빗자루와 쓰레받기 ▶대걸레 ▶스크럽용 브러시 ▶쓰레기봉투 ▶베이킹소다 등이 있다.

◇정리정돈

본격적인 대청소 시작 전 일단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부터 정리 정돈해야 한다. 옷장 속 1년 넘게 입지 않았던 옷들부터 주방 캐비닛에 사용하지 않는



주방 대청소는 스토브와 후드를 중심으로 냉장고 안, 싱크대 배관까지 꼼꼼히 살피고 청소해야 한다.
[unsplash.com 캡처]

친환경 세제 · 청소용품 사용해볼만 HVAC, 화재경보기 정기점검 필요해

식기와 소형 가전제품 등이 0순위다. 또 차고에 쌓여 있는 오래된 크리스마스 장식품이나 기념품 등을 비롯해 거실에 불필요한 장식품과 세간살이,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생활용품들도 버리거나 기부해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청소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입지 않고 쓰지 않은 옷들과 물건들은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이런 물건들은 과감히 버려야 집안이 깨끗해 진다”고 조언한다.

◇거실 & 침실

정리 정돈이 끝나면 집안 곳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자. 먼지는 보통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천정에서 벽을 타고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청소 전문가들은 “실링팬, 조명기구, 선반, 가구, 바닥 순으로 먼지를 제거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청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유리창. 윈도우 전용 세제 또는 식초와 물을 1:1로 혼합한 다음 사용하지 않는 티셔츠나 신문지 등을 이용해 닦아주면 된다. 소파의 경우 패브릭 소재라면 스티머를 이용해 소독을 겸한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다.

침실 청소의 경우,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매트리스다. 집먼지진드기 등이 서식하기 좋은 매트리스는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 얼룩

이 있다면 베이킹소다를 뿌려 30분 정도 놔둬다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된다.

◇주방 & 욕실

주방과 욕실은 타일과 배관 청소에 집중하자. 주방과 욕실에 타일이 부착된 곳이 있다면 타일 틈새에 곰팡이가 낄 수 있으므로 전용 세제와 브러시를 이용해 청소하면 된다.

또 싱크대와 세면대 배관에 누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한 달에 2회 정도는 백식초(distilled vinegar) 한 컵을 배수구에 부어주면 배수구 막힘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주방 스토브와 후드의 기름때를 잘 닦아내고 냉장고 안은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청소해 주면 된다.

◇배기구 & 화재경보기

세탁기와 건조기는 꼭 대청소 때가 아니더라도 평소 잘 관리해야 한다. 가에서 일어나는 주요 화재 원인 중 하나가 건조기 배기구에 먼지, 섬유, 의류 보풀들이 쌓여 배기구를 막히게 하기 때문이다. 또 냉난방시스템(HVAC) 필터 교체 및 정기점검도 잊지 말자. HVAC는 전문가에게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HVAC 필터의 경우 계절마다 혹은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해야 한다.

이외에도 소화기, 일산화탄소감지기, 연기감지기 등 주택 화재 관련 안전기구들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점검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이주현 객원기자
▶ 3면 ‘봄맞이 대청소’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엄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한중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보수 결정 방식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급여 **14억6700만원**

이사회가 결의한 임원처우규정에 따라 결정

20억9588만원 vs 8713만원. 24배. 한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91개 기업의 '연봉 킹'(보수액 최고)들이 받아간 지난해 평균 연봉과 이들 회사 직원 평균 연봉의 차이다(리더스인덱스). '킹 중의 킹'은 신동빈 롯데 회장(212억8100만원)이었지만, '월급쟁이' 최고경영자 중 최고 연봉자는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였다. 그의 연봉(98억9000만원) 중 95%(94억3200만원)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이었다. 기업의 최고경영진은 일반 직원보다 수십 배(미국 S&P500 기업에선 192배) 더 많은 연봉을 받아갈 만한 성과를 내고 있을까. 경영진 보상의 '어떻게'와 '무엇을'의 세계를 The Company에서 살펴봤다.

목표	부서별 목표 달성도에 따라 산정.
인센티브	월 급여의 0~200%내 연 2회 지급
성과	사업조직별 평가(세후이익, 자본비용 등 재무적)
인센티브	요소로 산정, 연봉의 0~50%내 연 1회 지급
장기성과	ROE, 주당수익률, 세전이익률 등을 평가해 3년
인센티브	평균연봉을 기초로 산정, 3년간 분할
설·추석 상여	각 월 급여 100% 지급

상여 **53억600만**

기타 근로소득 **1억3000만**

의료지원 건강검진, 단체상해보험 등

‘미래주식 성과급’ 뜨는 미국 ... 50억도 현찰로 주는 한국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RSU)

◆**현금 줄까, 주식 줄까**=경영진이 받는 보수는 크게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나뉜다. 기본급은 성과와 상관없이 보수지급기준과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다. 예컨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SK에서 35억원을 받았는데, 전부 성과와 상관없는 기본급이었다.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수령한 82억100만원 중 절반 가까운 40억원을 기본급(연봉 및 수당)으로, 나머지 42억원은 성과급으로 받았다.

기본급은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성과를 내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낮다. 그래서 기업은 경영진에게 보통 직원들보다 많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급은 현금이나 주식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로 지급한다.

한국내 기업은 미국 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현금 성과급을 더 많이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총연봉 69억300만원)은 성과급으로 50억8400만원(상여에서 설·추석 상여 제외)을 받았는데 모두 현금이었다.

주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의 대표는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이다. 자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행사가격, 부여 수량, 행사 기간 등을 약속하는데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이 생기고 보상 효과가 발생한다.

주식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방식 중엔 스톡

권트(stock grant, 주식 부여)도 있다. 회사가 자사주를 경영진에게 직접 주고 일정 기간 뒤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내에선 SK그룹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조대식 SK 부회장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38억3400만원을 받았는데 현금으로 29억59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8억7500만원은 SK 자사주(4698주)로 수령했다.

◆**‘독특한 성과급’의 역할**=핵심은 성과급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느냐다.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한 선구자로 꼽히는 경영이론가 चेस्터 바너드도 “지나친 성과급은 구성원의 개인주의를 만연하게 하고 협업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부서 간 교류 없이 자기 부서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일로 효과(Silo effect)를 일으킨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더 구체적인 문제도 있다. 한국내 건설·조선업계에서는 한 때 중동 플랜트 등을 저가로 수주하고 많은 성과급을 챙겨 회사를 떠나는 ‘먹튀’ 임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수주 실적 때문에 그해엔 해당 임원들의 성과평가 점수가 높지만, 몇 년 뒤 이 저가 수주가 회사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997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스톡옵션도 그동안 한국내에서 경영진 성과 보상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활용됐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정해진 행사 가격 넘게 회사 주가가 오르면 경영진은 언제든 스톡옵션을 행사해 차익을 실현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류영준 대표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은 2021년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44만여 주를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매도해 878억원의 차익을 거둬 ‘먹튀’ 논란이 있었다.

◆**주식을 미래에 준다**면?=스톡옵션의 대안으로 미국에서 먼저 등장한 게 RSU(Restricted Stock Units), 즉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2003년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애플, 메타, 아마존 등 주요 기업을 포함해 S&P500 기업 중 약 70%가 활용할 정도로 미국에선 일반적이다.

스톡옵션이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RSU는 일정 기간(vesting·베스팅)이 지난 뒤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직접 준다. 베스팅은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으로 다양하다.

RSU는 베스팅이 지난 뒤 주식을 지급하기 때문에 스톡옵션과 달리 ‘먹튀’를 막을 수 있고, 베스팅이 지난 이후의 주가가 직원 이익에도 중요하기에 경영진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 RSU는 한국에선 스타트업 중심으로 도입됐고, 현재는 한화, 두산, 네이버, 쿠팡, 토스 등이 도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내 상장사 중 RSU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6월 기준 12곳이다. 방식은 기업별로 모두 다르다.

네이버는 임원과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RSU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 네이버 주가가 코

스피200 지수에 비해 얼마나 더 상승했느냐를 따져 지급한다. 재작년 네이버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200보다 하회하면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RSU를 전혀 받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아직**=한국에선 RSU가 경영진 성과보상 제도로 확산하는 데 제한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RSU를 검토해봤는데 한국내에선 일반적이지 않아 관련 제도도 좀 미비하다 보니, 실제 도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RSU엔 세제 혜택이 없다. 현재 스톡옵션은 행사이익에 대해 최대 연 2억원, 누적 5억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RSU는 받을 때 50%에 가까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일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들은 의지가 있어도 RSU 자체를 지급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RSU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먼저 한 뒤, 그 주식을 임원에게 나눠줘야 한다. 그런데 상법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 한도로만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아직 후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자기주식 취득을 할 수 없어 RSU를 지급할 수 없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비상장 벤처 기업은 자기주식 취득이 배당 가능 이익 한도를 넘어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까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경영 성과 /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호프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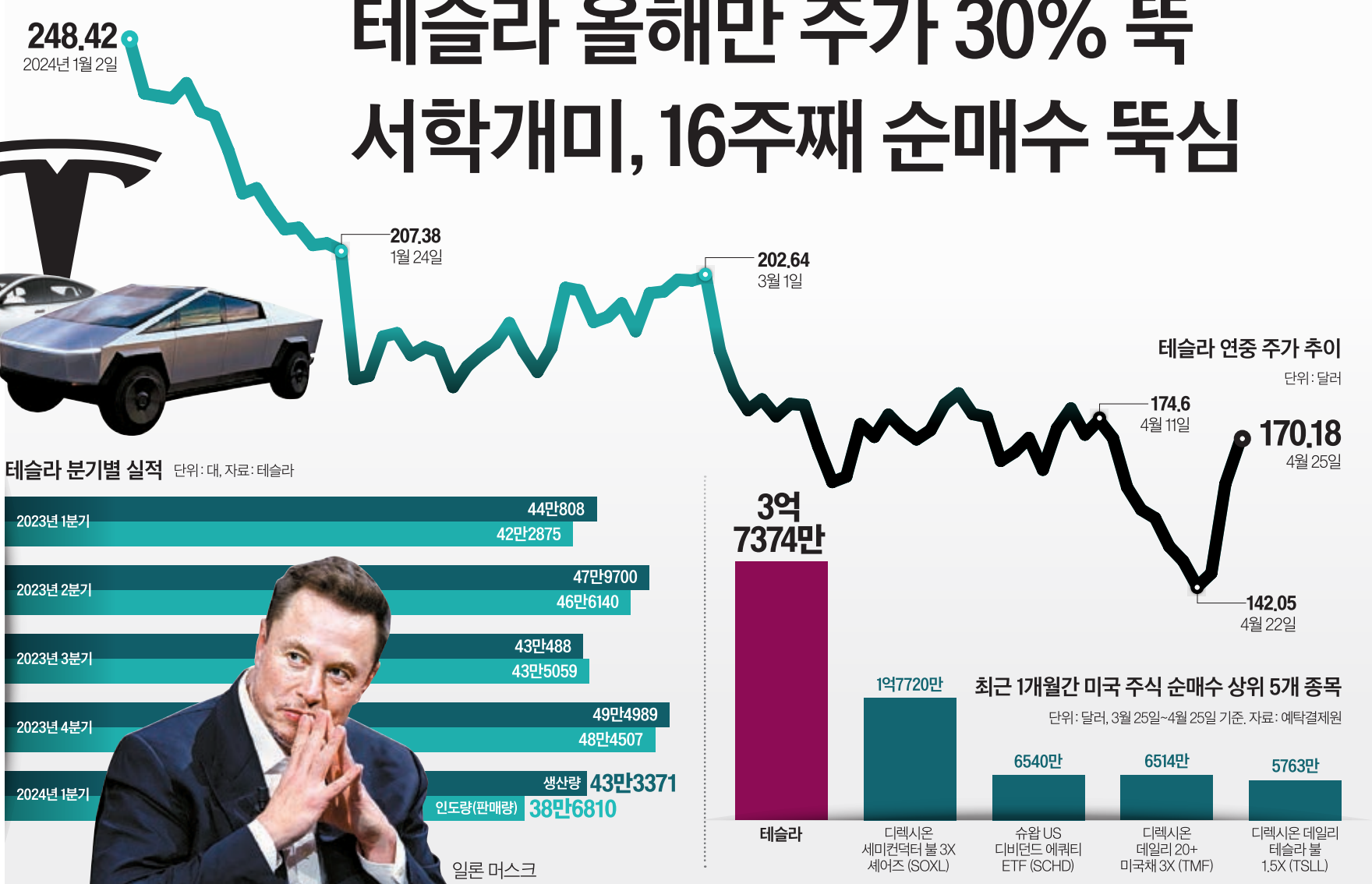
703-259-5617, 410-241-2520

800만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들의 투자 1순위 종목인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면 30% 가량 급락한 때문이다. 지난달 23~25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연초 가격 248.42달러(1월 2일)를 회복하려면 40% 이상 주가가 올라야 한다.

테슬라에 투자한 서학개미는 현재 최소 7%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4일 서학개미의 테슬라 보유금액은 93억3667만 달러(약 12조8565억원)였지만 23일 기준 보유금액은 87억2902만 달러(약 12조181억원)로 6.5% 줄었다. 지난해 4월 이후 추가 투자 금액이 1억9724만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8.82%가량 하락한 셈이다. 서학개미는 2022년 말 기준 727만 명(계좌)에 이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테슬라에 투자 중이다.

테슬라는 한때 ‘전슬라’로 불리며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5000억 달러대로 주저앉았고, 미국 내 시총 순위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전기차 업계 압도적 1위였던 테슬라가 위기를 맞은 건 전기차가 이른바 ‘캐즘’(기술 혁신이 대중화로 이어지기 전 나타나는 일시적인 정체)을 맞이하면서 수요가 급감한 때문이다. 테슬라는 올 1분기 38만6810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판매량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시장이 큰 중국에서 비야디(BYD) 등 중국 업체에 밀린 게 뼈아프다. 테슬라의 1분기 중국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급감해 3.7%에 머물렀다.

중국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주요 차량의 판매가를 17~24%가량 내렸지만, 실적 개선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 올해 전체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테슬라의 새 먹거리로 꼽히는 ‘로보택시’(자율주행 택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주가를 끌어 내리는 요인이다. 블룸버그통신



은 21일 “머스크의 로보택시 꿈이 테슬라를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며 “8년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추진해왔지만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고, 시험 운전을 위한 규제 승인도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8월 8일 로보택시 ‘사이버캡(Cybercab)’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던 게 월가의 공통된 전망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사업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가 회복의 걸림돌이다. 머스크는 그동안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닌 AI 로봇 기업”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그가 출범시킨 AI 스타트업 ‘xAI’는 시장에서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xAI가 다른 AI 회사와 경쟁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쟁사 오픈AI나 엔트로픽에 비해 늦은 데다 투자 규모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정치 리스크”까지 부상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미시간주 유세에서 “정부가 전기차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 폐기에 서명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최대 7500달러(약 1033만원)인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면 테슬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위축된 건 각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 가격 경쟁에서 내연기관차에 밀린 영향”이라며 “보조금을 없애면 전기차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서학개미는 테슬라 주식을 16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4월 1일~25일) 순매수한 물량만 3억1839만 달러(약 4386억원)에 달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기차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인 셈이다. 해외 투자자들의 흐름도 비슷하다.

WSJ은 리서치업체 만다리리서치를 인용해 “개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59억 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며 “이는 M7(Magnificent 7·훌륭한 7개 주식) 대형 기술주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전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 23일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조정하면서 “하락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승 기회가 있다”며 “감원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주가 흐름

을 바꿀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증권가에서는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인 ‘모델 2’ 등 차기 모델이 출시되고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돼야 흐름이 바뀔 것으로 본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신모델 생산 일정을 2025년 2분기에서 24년 말이나 25년 초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지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단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할 시점”이라며 “차세대 플랫폼 기반 신모델 출시에 따라 성장 기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지속적인 차량 판매 가격 인하에도 당분간 판매량이 늘어나긴 어려워 보인다”며 “저가형 차량과 로보택시 출시가 예정된 올해 말 또는 2025년 초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

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고민도 깊다. 미국 기업들은 경영진의 성과 평가를 위한 이사회에 보상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다. 보상위원회 설치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의무 규정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들도 경영진의 성과평가를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할 방법을 두고 고민한다. 과거 단기 성과 평가 중심에서 최근엔 장기 성과 평가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의 ‘장기성과 인센티브’(LTI) 제도를 보면, 삼성전자는 만 3년 이상 재직할 임원을 대상으로 지난 3년의 경영실적에 따른 보상을 향후 3년 동안 매년 나눠 지급한다. 3년간의 경영실적은 자기자본이익률(ROE), 주당수익률, 세전이익률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당장 1년짜리 성과가 아닌 3년 이상 성과에 대한 목표를 세우도록 유도하려는 제도다.

윤성민·최현주 기자

▶ 1면 ‘봄맞이 대청소’에서 이어집니다

◇야외 청소

겨우내 사용하지 않았던 테크나 발코니는 쌓인 낙엽이나 먼지 등을 제거한 뒤 식물이나 꽃 화분 등을 들여놓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 야외 청소 시 가장 신경 써야 할 곳 중 하나는 바로 흙통. 흙통 배수로에 낙엽이나 잔해물들이 있다면 이를 제거해야 하는데 대청소 때는 사다리를 이

용해 배수로 위에서 아래까지 잔해물들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정원이나 뒷마당에 큰 나무가 있다면 다가올 우기 때 쓰러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잔디 관리장비들도 마모됐거나 부품 교체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만약 주택 외벽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다면 새 페인트칠도 고려해 볼 만하다. 주택 외벽에 많이 사용되는 사이딩(Siding) 페인트를 새로 칠하면 해충 및 곰팡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PENDING

\$1,11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레스턴 콘도

PENDING

\$426,000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로턴 타운홈

\$580,000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클립턴 싱글홈

\$840,000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 경 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히려 올려달라는 의견이 5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152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8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총 6368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81.1%인 5163건이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이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커진다. 그런데도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건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금 기준되는 공시가격 집주인들 되레 “올려달라” 전세사기가 낳은 기현상



전세 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HUG가 이를 대신 돌려준다. HUG는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해 이를 회수하는데, 보증금이 주택

의 시세보다 낮아야 손해를 입지 않는다. 그래서 시세 이하의 반환보증 가입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 말부터 빌라·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반환보증 가입 한도를 줄였다. 보증 한도가 빌라의 시세를 웃도는 경우가 많아 사기에 악용된 탓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율 90%(=공시가격의 126%)’로 기준을 바꿨다.

이러면 보증보험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집주인들은 전세 계약을 새로 맺을 때 기존보다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닥친다. 이 때 보증금 차액은 집주인이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보증 한도가 더욱 줄게 된 것이다.

이에 빌라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안)에 의견을 제출한 빌라(다세대·연립) 소유주 3886명 중 96.2%(3740건)가 ‘공시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 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

증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1.52%)이 크지 않은 영향으로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8159건)보다 22%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9.08%(전국 평균) 상승했던 2021년(4만9601건)의 8분의 1 수준으로 의견 제출이 6년 만에 가장 적었다. 정부는 올해 제출된 의견 가운데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 외부 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19.1%)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시가격이 결정되면서, 이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 역시 전반적으로 지난해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지난해보다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09% 올라 서울 평균(3.25%)을 웃돌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벌여 6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김원 기자

GS건설, 여주에 첫 ‘자이’ 브랜드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이달 분양

분양하이라이트

남향 위주, 4베이 판상형 평면 구성

도로·철도 교통요지 769가구 규모

GS건설이 경기도 여주시 교통 일대에 짓는 ‘여주역자이 헤리티지’(조감도)를 이달 분양한다고 밝혔다.

여주에 첫선을 보이는 ‘자이’ 브랜드로 지하 2층~지상 27층, 8개 동 전용면적 59~136㎡ 769가구 규모다. 실수요자 선호하는 84㎡ 이하 중소형이 663가구로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고급 수요층을 위한 펜트하우스 2가구도 있다. 단지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고, 4베이(Bay) 판상형 평면을 갖췄다. 일부 가구는 3면 발코니가 적용되며, 대형 드레스룸 등과 같은 차별화된 공간도 있다.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 입욕 시설을 갖춘 사우나, 작은 도서관, 카페 앤드 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이 단지는 약 5만9000㎡ 규모로 조성 중인 세종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들어선다. 현재 입주를 마친 여주역세권(1947가구)과 교통·교통2지구(1156가구)에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를 더하면 총 3872가구 규모로 여주 최대 주거 단지가 된다.

‘사통팔달’ 교통망이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이다. 우선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강선 여주역을 타면 판교역까지 40분대에 닿는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IC와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제2영동고속도로도 가까워 이동이 편하다. 또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노선에 여주역이 포함되면서 향후 대중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경강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초·세종중 등 학부포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학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각종 생활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이마트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가깝다. 분양문의 1644-1080.

김원 기자

일본 따라가는 한국, 2039년 가구 수 정점

2050년엔 13%가 빈집

일본 도쿄권(수도권)의 주택자산가치가 2045년에 2019년 대비 30%까지 하락해 94조엔(약 840조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한미글로벌·한반도미래연구연구원 주최로 열린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일본의 도시계획학자인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 도시생활학부 교수의 분석이다. 저출산·고령화를 한국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는 만큼 한국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토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부동산 가운데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인구가 물려 있는 도쿄권에서도 주택 자산 가치 하락을 피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값 낙폭에는 도심에서 출퇴근 시간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며,

출퇴근 시간이 60분이 넘어가면 집값 하락이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도쿄 중심부에서 통근 시간이 60분이 넘어가면 집값이 29.8%, 120분은 54.7%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주택 자산가치의 하락은 ‘빈집’ 증가로 이어진다는 게 우토 교수의 설명이다. 2018년 기준 일본의 빈집은 850만 가구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6%다. 우토 교수는 2033년까지 일본 전국 빈집은 전체의 30%까지 늘 것으로 추산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우 현재 추세대로라면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 수가 2039년에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지만 2040년 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해 그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며 “가구 수가 감소하는 2040년 이후부터는 빈집이 급격히 늘어 2050년에는 전체 채고의 13%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리스팅 받습니다!

MD리퀴스토어, 세탁소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 Tel: 703-231-5572

주택 매매 /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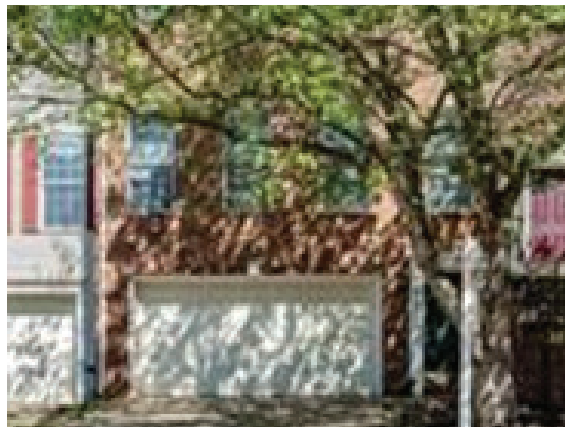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콘도 (타운홈타입 3층짜리)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특히나 요즘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제는 바로 어떤 순서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일 것이다.

집은 사고 싶는데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또 어떤 순서로 일을 진행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하다는게 많은이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그러다보니, 우선 온라인상으로 쉽게 접근할수 있는 집에 관한 정보들부터 검색하기 시작한다.

관심있는 지역에 어떤 집들이 얼마의 가격에 나왔을까 찾아보고 또 해당 집들은 어떤 구조에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을까 이래저래 따져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오픈하우스나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직접 방문해서 과연 온라인상으로 봤던 집들이 실제로 봐도 똑같이 느껴지는지, 또 농천부분들

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곤 한다.

그런 다음 집이 마음에 든다면 이젠 이집을 어떻게 살까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관심있는 집들의 후보군들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순간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높은 이자율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서 한번 놀라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예상 페이먼트를 듣고 다시 한번 더 두번 놀라게 되고, 결국 고공행진의 부동산 시장을 피부로 체험하면서 이리다간 쉽게 집을 살지 못할것 같다는 실망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눈높이를 낮춰서 이제라도 내가 감당할 만한 페이먼트를 기준으로 다시 해당 주택군을 고르고 골라 좁혀나가게 되고, 이를 통

올바른 순서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해서 찾게 되는 주택들은 처음 내가 찾아보았던 훨씬 더 크고 여유로웠던 주택들에 비해 다소 실망감을 가질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 된다. 그러다보니, 내가 감당할수 있는 버짓에서의 주택은 눈에 차지 않게 된다.

이미 처음부터 안목을 너무 높여나

우선이 되어선 안된다.

용자를 얻어야만 주택을 구입할수 있다면 우선은 내가 얼마만큼 용자를 얻을수 있고, 또 어떤 조건으로 용자를 얻게되며, 그리고 이를 내가 충분히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모든 조건을 뒤로하고 우선 순위에 있다는걸 잊지말아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고자한다면, 우선 내가 용자를 얼마까지 어떤 조건으로 얻을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내가 충분히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확인을 거치는것이 맨처음 채워야하는 올바른 첫 단추이다.

그다음에 이를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예산의 눈높이를 정하고 그에 알맞는 주택을 찾고 확인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구입하는게 현명한 주택 구매자의 올바른 순서 일 것이다.

>문의: 703-868-7147

부동산 투자 용어

투자할 부동산을 찾기 위해 리스팅을 보다 보면 흔히 눈에 띄는 단어 중의 하나가 ‘캡(Cap: Capitalization Rate)’이다.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렌트수입인데, 이 렌트수입에서 관리에 드는 비용을 뺀 것이 순수입이 되고 1년 순수입을 구매가격으로 나눈 것을 캡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0만 달러에 산 아파트에서, 매달 들어 오는 렌트수입이 1만5000달러고 공실률을 포함한 모든 관리비용이 5000달러라면, 연 순수입(NOI: Net Operating Income)이 12만 달러이고, CAP은 6%가 된다. 캡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 대비 수입이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캡이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가치 산정기준이 되는 데 실제의 거래 과정에서 CAP을 계산하는 방법은 훨씬 자세하고 복잡하다.

한편 매물을 찾을 때 보통은 캡을 따지기 전에 우선 매물의 가격이 1년 총수입(Gross Income)의 몇 배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하고 일반적인 측정방법이다.

이것을 총수입배수(GRM: Gross Rent Multiplier)라고 하는데 계산 방법은 ‘GRM= 매매가격 ÷ 연간 총 예상수입’ 이다. 월수입이 1만5000달러인 아파트는 연수입이 18만 달러가 되니 200만 달러를 18만 달러로 나누어 보면 총수입 배수인 GRM은 11.1배가 되는 것이다.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경비를 무시한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면 투자용 부동산의 수익률을 자세히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지출과 공실률에 대한 용어들을 알아보자.

먼저 NOI는 총렌트수입(GI: Gross Income)에서 운영경비(Operating Expense)와 공실률(Vacant Rate)을 뺀 금액이며 이것이 투자자의 실수입이 된다. 운영경비에는 재산세 보험료, 매니저비용, 유틸리티 관리비, 수리비, 가드닝 등이 포함된다. 공실률은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 중에 렌트비를 못 받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통 3~5%를 책정하여 수입에서 제한다. 총 렌트수입의 30~35%를 비용으로 잡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이유로 렌트수입을 해당 건물이 모두 찾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잠재적 렌트수입(PGI: Potential Gross Income)과 실제 거둬들이는 월 렌트인입에서 앞서 소개한 공실률을 뺀 유효 렌트수입 (EGI: Effective Gross Income)으로 나누기도 한다.

물론 운영경비에는 모기지 페이먼트와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아파트와 트리플넷(NNN)이 적용되는 상가운영의 운용내용은 조금 다르다. 그런데 위의 200만 달러짜리 아파트의 경우 렌트수입에서 모든 경비를 제한 NOI가 12만 달러인데 이 건물을 40% 다 운하고, 120만 달러를 이자율 4.5%로 융자하여 사다면 연 페이먼트가 7만2000달러 정도다. 그러므로 투자자에게 매년 4만8000달러의 실제 수입이 생긴다. 이때 80만 달러를 투자해서 연 6%의 수입이 생겼으니 캐시 온 캐시(Cash On Cash)라고도 부르는 캐시플로(Cash Flow)는 4만8000달러다.

미셀 원-BEE부동산 부사장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최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NAR)와 대형 부동산 중개 회사들이 캔자스시에서 있었던 홈 셀러들과의 연방 집단소송에서 4억 달러가 넘는 액수로 합의를 보기로 동의하면서 부동산계는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20건이 넘는 유사한 소송 중 하나에 불과한데 셀러들은 MLS, 즉 부동산 매물 리스팅 서비스 시스템에서 바이어 에이전트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협회와 부동산 중개회사들이 불공정하게 조정했다는 주장이다.

MLS에는 원래 매물을 올릴 때 바이어 에이전트에 관한 커미션이 명시되어 있어 셀러가 만일 상대적으로 적은 커미션을 제시했을 경우 바이어의 에이전트들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매물들을 피해 바이어들에게 집들을 보여주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결국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셀러들은 불리함을 겪었다는 것이 소송의 배경이다.

오는 7월부터는 MLS에 매물을 올릴 때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명시하는 옵션이 아예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분이 오해를 하는 부분은 7월부터는 바이어 에이전트에 대해 커미션을 아예 지급하지 않게끔 되는 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확히 그런 뜻은 아니다. 커미션은 언제나 협상하는 한 부분이다. 그저 지금까지는 셀러의 에이전트가 리스팅 계약서를 사인할 때 셀러와 합의가 된 커미션을 MLS에 매물을 올릴 때 아예 명시하고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반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옵션이 가능해질 것이다.

첫 번째, 바이어가 본인의 에이전트에게 얼마만큼의 커미션을 수고비로 지급할지 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바이어가 이를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는 셀러가 양쪽 에이전트들의 커미션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됐으므로 바이어들이 이를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게 되는 것이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소요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옵션은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셀러와 바이어가 함께 나눠서 부담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셀러가 여전히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부담하는 방법인데 아마도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이럴 여지가 크다고 봐야겠다. 셀러 입장에서서는 사실 가능한 모든 오퍼를 다 오픈해서 받고 거기서 본인에게 가장 나은 오퍼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커미션을 내고도 결국 가장 이익이라면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커미션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인가는 협상하기 나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이전트들은 본인들이 커미션을 받을 만한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협상의 능력, 전문적이고 총괄적인 지식 등을 더욱 입증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경쟁적인 부동산 시장의 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이 셀러에게 유리한 셀러의 마켓이든, 바이어에게 유리한 바이어의 마켓이든 누군가는 필요 때문에 커미션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나 이제껏 해 온 것보다 더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방식들이 당분간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학습이 되고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 김·네오집스 리얼티 Broker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후원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책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Bowie
\$639,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



Edgewater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Rockville
\$280,000
콘도



Perry Hall
싱글홈, 방3, 화2.5



Ellicott City
\$689,000
싱글홈, 랜치 스타일
좋은 학군, 0.75 에이커



Cockeysville
\$1.3Million
싱글홈, 방6, 화4.5, 차고3
Finished Basement



Columbia
싱글홈, 방4, 화2



Ellicott City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Rockville
\$520,000
싱글홈, 방4, 화2



Cooksville
\$449,000
싱글홈, 방4, 화2.5



Elkridge
월 \$2,800 타운홈
방4, 화3, 차고1



Hanover
월 \$3,100 타운홈
방3, 화2.2, 차고2, 전채마루



Germantown
월 \$2,400 타운홈
방3, 화4



Glen Burnie
월 \$1,750 타운홈
방2, 화1



Hanover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



Odenton
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Mel: Let's go to the card club on Friday night.
멜: 금요일 저녁에 카드 클럽에 가자.

Greg: I don't know Mel.
그렉: 난 잘 모르겠어 멜.

Mel: Why not?
멜: 왜?

Greg: I went to the track yesterday and I didn't
break even.

그렉: 어제 경마장에 갔는데 돈을 잃었거든.

Mel: I thought you were sick yesterday.
멜: 난 어제 자네 아픈 줄 알았는데.

Greg: I was. I was sick of work. Don't tell anyone,
okay?

그렉: 그랬어. 일하기가 싫어서 아팠지. 아무한테
도 얘기하지 마, 알았지?

Mel: How much did you lose?

멜: 얼마나 잃었는데?

Greg: Six hundred dollars!

그렉: 600달러나!

Mel: Wow! That's a lot.

멜: 우야! 많이 잃었구만.

Greg: So I better pass on Friday night.

그렉: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사양할게.

기억할만한 표현

▶ the track: 경마장

"I don't go to the track unless I have extra money."

(Mel is talking to his friend Greg at work...)

(멜이 직장에서 친구 그렉과 얘기한다...)

(전 여유돈이 있는 게 아니라면 경마장에는 안갑니다.)

▶ break even: 돈을 잃지도 따지도 않다

"In Las Vegas breaking even is like wi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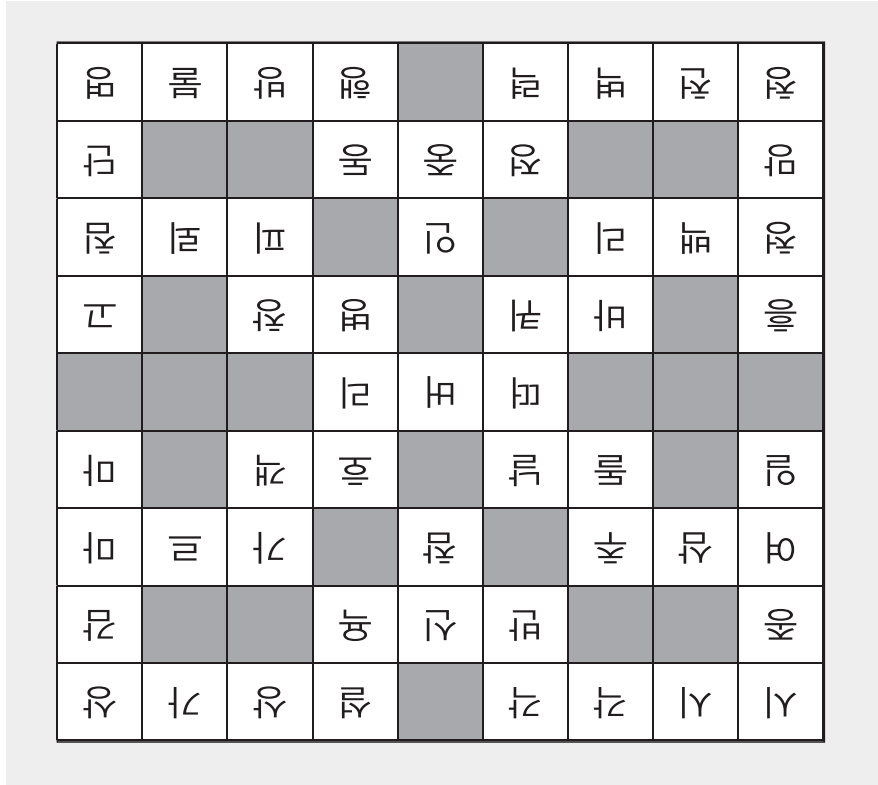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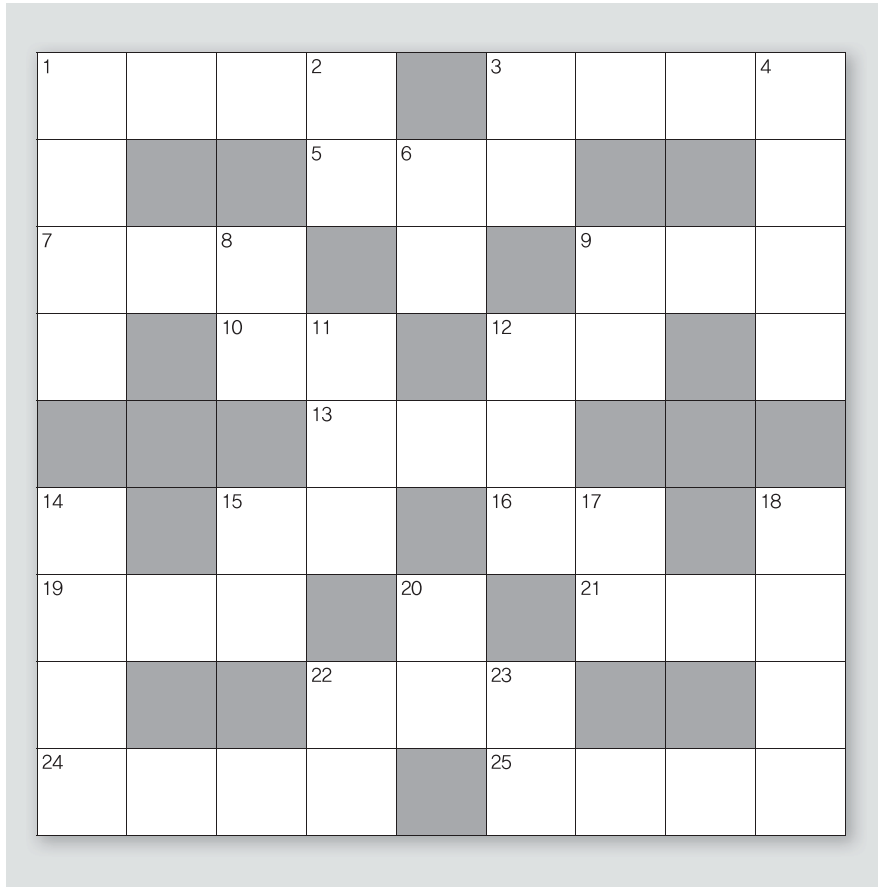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돈을 잃지 않으면 이기는 거나 마
찬가집니다.)

▶ pass on (something): 사양하다 원하지 않다

"Sorry I have to pass on the fishing trip."

(죄송하지만 전 이번 낚시 여행은 사양해야겠습니다.)

날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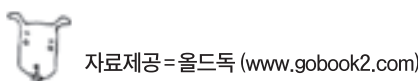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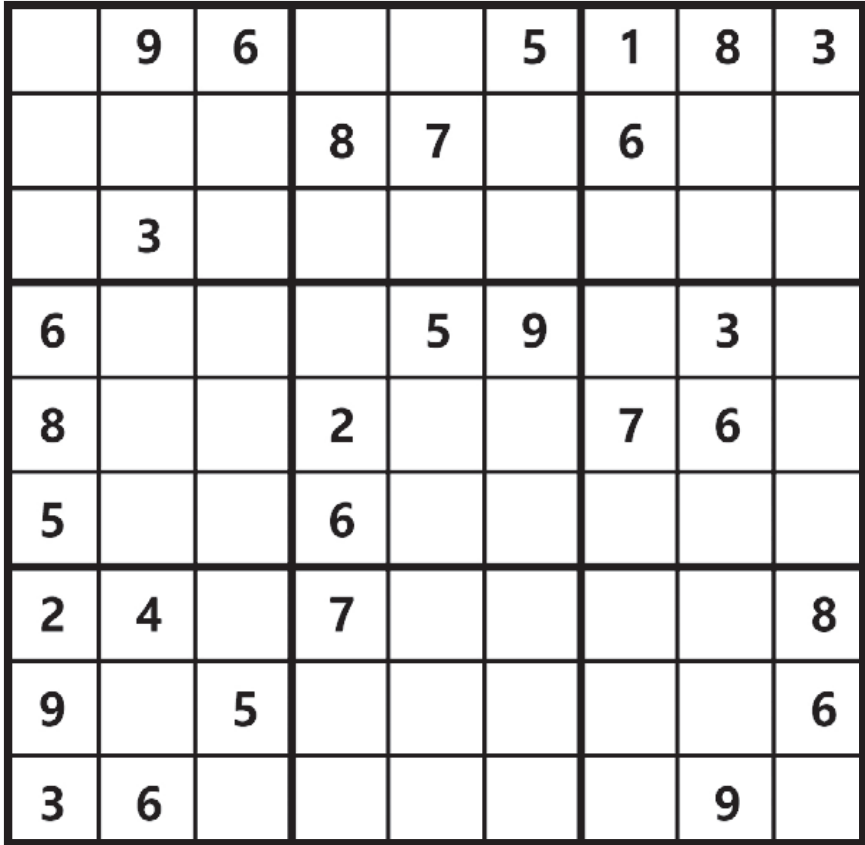
가로열쇠

(1)시간이 흐름에 따라. 케이בל카를 타고 ~ 바
뀌는 풍경을 보는 것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시□□ (3)눈 위에 서리가 덮임. 난처한 일이
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 (5)몸을 배꼽까
지 담그고 하는 목욕 (7)3년과 같이 시간이 길게
느껴짐. 몹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9)이마에
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10)태어난 지 꼭 한 해가 되는 날
(12)물건 파위를 팔기 위하여 손님을 부름 (13)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15)수레, 자전거, 자동
차에는 이것이 있어 굴러가죠 (16)악기를 타면
서 자신이 거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름. 명창 안
숙선의 가야금 ~ (19)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닫고 깨끗한 관리. ~ 풍구멍은 송곳 부리 같다
(창백하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지 못하여 지극히
가난함) (21)벼락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금속제의 막대기 (22)조
용한 가운데 어떠한 움직임이 있음. 무용가의 춤
사위에서 ~의 미가 짙게 느껴졌다 (24)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
나 사건. □천□□ (25)간 곳이나 방향을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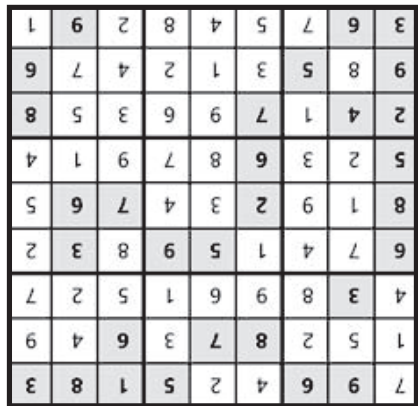
세로열쇠

(1)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중□
□ (2)발목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돌려 감거나
싸는 띠. 행전. 스파츠 (3)부끄러움을 씻음. 그
선수는 치욕적인 패배 후에 마음을 가다듬고 ~
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4)임금님 (6)새로 참가
하거나 들어옴. 새내기. ↔고참 (8)자동차나 기
차 파위가 뒤에서 들이받음 (9)시조 파위를 잘
짓거나 창(唱)을 잘하는 사람 (11)그날그날의
운수. 오늘 따라 ~가 좋을 걸 보니 눈먼 돈이라
도 주우려나 보다 (12)위와 아래가 동글며 가운
데가 잘록한 모양으로 생긴 병 (14)흥에 겨워 마
음대로 즐기는 모양. 돈이나 물건 파위를 마구
쓰는 모양. 살림이 좀 나아졌다고 ~하다가는 일
마 안 있어 망한다. 흥□□□ (15)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 아저씨는 자전거에 짐을 ~ ~ 싣
고 아침 일찍 떠나셨다 (17)체면이 깎이는 일이
나 아니꼬운 일을 당함. 시험에 또 떨어지다니
~가 막심이다 (18)베개를 높이 베면 오래 살지
못함. 고□□□ (20)코와 윗입술 사이에 오목하
게 골이 진 곳 (22)남자의 성적(性的) 능력. ~
이 왕성하다 (23)같이 길을 감

스도쿠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어 넣어야 합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3자리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 생명보험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위인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소크라테스
(BC469~BC399)

그는 문답법을 통해서 아테네 시민들을 철학적 출발점에 서게 하였다.

사실 나도 잘은 모르오.

이보시오들, 행복을 가져다 주는것은 무엇이오?

글쎄요.

결국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투옥된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철학자!

악법도 법이다!

그런 그에게는 못생긴 처가 있었는데,

옆집 침묵리우스는 돈도 많이 벌어들이다더만 내가 못살아! 정말!

니 자신을 알라!

딩!

인간아! 노가리는 그만 까고 돈벌어와! 돈!

원래 부터 악처는 아니었다고 한다.

여..여보.. 내 말은.. 그런듯이 아니라...

1

2

3

4

5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밝고 밝고 건강하게 열린
헬스케어가 함께 합니다.**”



메디케이드
신청 상담



롱 텀 케어
서비스



어시스트 리빙
[양로 호텔]

2024년 하반기 오픈 예정

양로원에 들어가실 분들과 나오실 분들께
그룹 홈이나 양로 호텔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니어 부부는 그룹 홈으로 모십니다!



VIRGINIA OPEN
HEALTH CARE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대표 김종훈

문의 및
안내

Doug Ko, PMP, Director of Healthcar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s

Mobile: (703) 268-0107

Office: (703) 280-0910



General Inquiries: info@vaohc.com

5월

인

광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피트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LOTTE PLAZA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슈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영어 / 컴퓨터 사용
-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he123@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A recruitment advertisement with a black background. At the top, the Korean text '구인' (Recruitment) is written in large white characters. Below it, the text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In a busy auto body shop) and '경험있으신' (Experienced) are in white. The main title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Auto body technician wanted) is in large, bold white characters. Underneath, the English text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and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are displayed. In the center is a white car on a lift. At the bottom, the phone numbers 'T. 301-977-4484' and 'C. 240-246-4477' are shown in large white characters.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5월 2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폴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소
-폴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폴/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광고문의 : 703-281-966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폴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폴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_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푸드 물류회사
폴/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폴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
파트타임/폴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가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크일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폴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o.kr
josephleejtbco@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폴/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폴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폴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 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폴/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치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폴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르뱅 베이커리 캐쉬어 구합니다.
(오전/오후/주말)
703-263-2000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워싱턴 디씨 IAD 공항 라운지
키친스태플을 구합니다
201-551-8861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폴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베이글샵에서 일하실분. 파/폴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물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스시 & fried
chicken / 파트타임 & 폴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슈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꾸우실분 구함.
파/폴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301-926-3638 / 301-538-4246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분
파트타임(2일), 라이선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폴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폴/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렌트 수입 좋은 콘도 4채 매매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200/m
- 매매가: \$5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목요일 중앙일보

<p>〈세탁/얼터레이션〉</p> <p>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p> <p>픽업 폴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리지 지역 571-455-3609</p> <p>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p> <p>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p> <p>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도레이션 구합니다 (폴·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윈 선상 703-501-3335</p> <p>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 분 파타임/폴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p> <p>〈정비/바디샵〉</p> <p>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p> <p>자동차 메케닉 구함 (애난데일) 571-243-9899</p> <p>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p> <p>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처지 703-577-5866</p> <p>첸틀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p> <p>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p> <p>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p> <p>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p> <p>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p> <p>〈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p> <p>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p> <p>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p> <p>HD Plus Construction 밀워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보장</p>	<p>(571)420-5492 / (703)256-5486</p> <p>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p> <p>EV Electric Co. 차,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p> <p>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p> <p>〈기타 구인/구직〉</p> <p>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p> <p>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전공 음악 전공 (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p> <p>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p> <p>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p> <p>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p> <p>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p> <p>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p> <p>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Mother's Day Week에 가게 안에서 일하실 분과 Driver 구합니다. 571-230-7686 Text</p> <p>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p> <p>필그럼유치원 교사 모집 토틀러반 폴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p> <p>애난데일 인쇄회사 폴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p>	<p>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p> <p>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속식도 가능. 410-961-3012</p> <p>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p> <p>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속식도 가능. 410-961-3012</p> <p>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연락: 240-903-0777</p> <p>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 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덕로드, 202-271-2726</p> <div><div>RENT</div><div>부동산 렌트</div></div> <p>〈싱글/타운하우스 렌트〉</p> <p>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발코니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p> <p>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p> <p>아난데일 홈디오 옆 위치. 넓고 밝은 3level 타운홈, 방3, 화 2+2.5 전체마루, 덱,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p> <p>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 3 층, 방 4+ 화장실 3.5. ▶703-244-3453</p> <p>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거실, 화장 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1,300 571-243-7027 (문자)</p> <p>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학군 410-599-1800</p> <p>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p> <p>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p>	<p>연락처 :301-385-3535</p> <p>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p> <p>센터빌 타운홈 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p> <p>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p> <p>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p> <p>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p> <p>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p> <p>〈콘도 렌트〉</p> <p>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p> <p>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p> <p>콘도 렌트, 센터빌 사거리 불링장 뒷편, 남향집 조용한 지역, 큰 방 2개, 화장실 2개, H마트 및 은행 도보 10분, 단지 수영장 5분 거리, 지정 주차 및 방문 차량 주차 무한대, 8월 말 입주 가능, \$2,200(전기세 별도) 703-229-3947</p> <p>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 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p> <p>〈방렌트〉</p> <p>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p> <p>아난데일 h마트 뒤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p> <p>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 별도 금연자, 롯데 10분거리. 702-622-8853</p> <p>클리프턴 유니온빌 물 부근 싱글홈 반지하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703-732-9153 애난데일 K마트 뒷정글홈 방1개, 주차역박 703-965-2343</p> <p>센터빌 H-마트 근처 단독주택 방렌트 지하방+거실, 뒷출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p>	<p>센터빌 롯데 옆 타운홈, 방1개(욕실/화장실) 571-970-8048</p> <p>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학생, 직장인 환영 703-981-7615 (문자)</p> <p>방렌트, 홈디오 뒤, 주차장 넉넉함, 출입문 따로. 571-237-3411</p> <p>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연락처: 301-648-2422</p> <p>애난데일 메시아장로교회 뒤편 타운하우스 지하실 방 하나 렌트. 목욕탕, 화장실 703-887-5173</p> <p>애난데일 방1개, 부엌, 리빙룸, 샤워 유포, 인터넷, 세탁기(\$1,300) 703-618-6634</p> <p>MD Silver Spring 한아름 10분거리 조용한 단독주택 2층. 넓은 마스터 베드룸 쓰실 분. 가구완비, 인터넷, 간단한 취사 240-543-6427</p> <p>애난데일 한강근처 타운홈 방세눔 전화: 571-699-9707</p> <p>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p> <p>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 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p> <p>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p> <p>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 별도/ 주차/샤워별도. 남자분 / 금연자 29번과 198번 사이 메릴랜드 버트스빌 240-413-2738</p> <p>MD 렌함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p> <p>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렌트 (방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환영. 703-336-3283</p> <p>노스 포토크, NIST 근처 싱글홈 반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p> <p>센터빌 H-마트, 하이스쿨 각 5분 거리 방 세눔음, 여자분 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p> <p>애난데일 방 1, 샤워실, 출입문, 간단취사 주차 편리, 즉시입주. 금연자 571-243-6295</p> <p>DC 출퇴근 매우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p>
--	---	---	--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싱글홈 No HOA \$470,000

1층, 시니어 생활편리 (방 3), 0.23 에이커 대지,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방 1, 화 1, 병원, 샴핑몰, 그로서리 등 근접 용이



1층 콘도 \$310,000

방 2, 화 2, 전체 실내 Hardwood 구조 저렴한 콘도 \$260 (Water, Trash 포함) 주차 여건 좋음, 샴핑몰 Costco, 병원 등 인접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5월 2일 목요일

구인 / 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C15

<div><div>《사무실/점포 렌트》</div><div>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div><div>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div><div>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div><div>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주차장. 703-966-9937</div><div><div><div></div><div>부동산 매매</div></div><div>《싱글/타운/콘도 매매》</div><div>1.Coming Soon 애닌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div><div>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순렌트 수입 \$5,000/m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div><div>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당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div><div>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div><div>《부동산/상업용 매매》</div><div>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당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div><div>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SF, 28 당구대 완비 경험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div><div>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Sale Price: \$290,000 ·Weekly's sales: \$6300. (평균)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div><div>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div><div>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div></div></div>	<div>일식집, 예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div> <div>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div> <div>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div> <div>1. 메릴랜드 자이안트엿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가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div> <div>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inrcoin777@gmail.com</div> <div>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 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 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div> <div>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div> <div>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선 가능한분, 세탁소 오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div> <div>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div> <div><div>기타</div><div>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div><div>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div><div>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div><div>버크레이크에서 멀췌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버크레이크 힐터 / 시간: 일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클럽 ▶703-939-5223</div><div>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춘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div><div>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 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div><div>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 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div><div>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세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div></div>	<div>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div> <div>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싯가로 판매 443-355-7700</div> <div>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div> <div>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div> <div>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div> <div>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div> <div>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div> <div>《중고품/기타 매매》</div> <div>흰색 Vertical Blind(Triple Door 용) 80"H X110"W. 무사용 새것(Box) Sale \$400 (Reg. \$800) 703-431-4521 (문자 주세요)</div> <div>이사(downsizing)세일 -treadmill & bike machine \$100 -베라렘 \$100 -3bikes \$100 -tools \$100 -living room set \$300 문의 : 703-581-2631</div> <div>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 /8.000 / 10.000 / 12.000 (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첼틀리)</div> <div>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묘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div> <div>-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div> <div>허리 운동하는 꺼꾸리 \$50(사용설명서) 240-477-3232</div> <div>골프채 판매 -드라이버 9.5도 315cc -아연 닥센트 4—9 S P번까지 8개 -던랩 (스페인제)3—9 P S 7개 -요넥스 6—9 P N 6개 240-475—4166</div> <div>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div> <div>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div> <div>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div> <div>《건축/페인트/마루》</div> <div>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div> <div>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div> <div>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div> <div>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덱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div>	<div>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div> <div>와니 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모든공사,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div> <div>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div> <div>《보험》</div> <div>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div> <div>《용자》</div> <div>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div> <div>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div> <div>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div> <div>《소독/가스검사》</div> <div>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div> <div>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NRPP 면허소지 ▶202-774-6554</div> <div>《냉동 & 히팅》</div> <div>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Carrier, Trane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문의:703-380-2282</div> <div>L&B UNIVERSAL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div> <div>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div> <div>아라냉동 에어컨, 히팅,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div> <div>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div> <div>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냉동,냉장,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div> <div>《보석》</div> <div>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div> <div>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div> <div>《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div> <div>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div> <div>베스트 카펫, 카펫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티밍삼푸,살균,소독,냄새및 얼룩제거, 브러쉬,파워폴청소. 응급 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div>	<div>《플러밍》</div> <div>SK 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온수, 히터 다쉬워셔,Disposals,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div> <div>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GAS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div> <div>《이삿짐》</div> <div>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div> <div>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div> <div>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 시내 이사,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div> <div>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div> <div>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타주,시내 이사,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div> <div>《핸디맨/리모델링/전기》</div> <div>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div> <div>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div> <div>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div> <div>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부엌 ▶571-338-0977</div> <div>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div> <div>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div> <div>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div> <div>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div> <div>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div> <div>《유리》</div> <div>JK유리 &Window 상점,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div> <div>《임업 멸칭》</div> <div>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div> <div>생활안내 703-281-9660(문자)</div>
--	--	---	---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설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일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세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급 포장 이사 서비스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줄인

마이클 장

줄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방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파워 폴청소 (덱,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시공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LVT (Luxury Vinyl Tile)

VCT (Vinyl Commercial Tile)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청은 자란 나무, 덩불,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청

용자 가능

토지 개간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전 후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

애틀랜타 ☒

기타 지역 ☒

매매

구인

구인

뷰티서플라이

텍사스 달라스 백화점 물매
가\$25만, 주인직접매매
4,700sf, 렌트\$7,000(UT포함)
(254)652-1867
beautyworlddenton.com

일본식당 구인

*데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겉에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이민생활의 나침반
안내광고
(213)368-2525

꿈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한인최대 온라인 쇼핑몰

건강, 식품, 생활용품, 아이디어 상품, 반려동물 용품, 테마파크 티켓에서 각종 코로나 관련 상품까지

HOT DEAL

이보다 더 저렴할 수는 없다!

LA KTown 213.368.2611

한국제품이 참 많아서 좋아요~ Hotdeal.Koreadaily.com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급한돈 융통/융자/재융자\$\$

▶ 나쁜 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회사
▶ 다쓴카드 재사용 전문입니다.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힘드신분 방법 알려 드립니다.
▶ 사업체 운영/ 매매/ 폐업시 바로 융자 가능합니다.
▶ 빚 때문에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을 위한 특별상담
▶ 억이민 고려하시면 현금마련 방법이 있습니다.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남성도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야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성 발기 링, 전설의 낙타 속눈썹
& 바르고 하면 남녀 모두 흥분가는
바르는 성생활 흥분제, 윤활유 젤
1-213-210-9720, 전화,보이스톡,카톡,톡톡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와 산맥
천공산삼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출세입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천공산삼 40% ~ 50% 가격세입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출혈·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한의학박사 서영수

명약 산삼금옥탕 도인력사단 50%특별할인가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BAYVIEW ADVISORS FOR HEDGE FUNDS

All about Hedge Funds Investment

CHRIS CHUNG
MANAGING DIRECTOR
516-321-0353 chris@bayview.llc

30 Years of CPA
experience
for Hedge Funds

회사 설립
도와 드립니다.

운영, 투자,
회계 관리 전문

경력
QR code 참조

JOHN CHUNG
John.chung@bayview.llc
917-609-5690

CONTACT US : EMAIL / TXT ONLY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부동의 1위 일월

이월

북미주 일월 총판업체
213.985.4200
www.ilwoulusa.com

을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대표
브랜드
대상

한국
온열매트중
일월만 인증
UL®

품질방 효과
탄소열선
원격외선
방출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극 탄소
열선

물세탁
가능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화재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탄소 원격외선 발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 퀸 \$379
트윈 \$229 | 퀸 \$279

탄소 원격외선 항균원단
에어울싱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 더블 \$299
싱글 \$169 | 더블 \$199

탄소 원격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 더블 \$359
싱글 \$219 | 더블 \$259

탄소 원격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페트
중형 \$385 | 대형 \$465
중형 \$335 |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 퀸 \$419
트윈 \$299 | 퀸 \$369

편리한 소파용
온열매트
\$129
\$79

독점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Annandale \$884,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렌블러 스타일



독점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329,9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실 2,
계단없는 1층, 나무마루, 업데이트

\$317,000



독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독점

새로 리모델한 타운하우스

Woodbrige \$2,400

엔드 유닛 타운 홈, 차고1



Woodbrige \$2,650

2층 타운 홈, 엔드 유닛, 2,362 SF, 차고1, 고급 나무 마루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